



저작자표시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외교학석사 학위 논문

신뢰와 국제정치

: 2003년 이라크 전쟁 전후 영미관계 변화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부 외교학전공

이 희 수

신뢰와 국제정치

: 2003년 이라크 전쟁 전후 영미관계 변화를 중심으로

지도교수 전 재 성

이 논문을 외교학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1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외교학전공
이 회 수

이회수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21년 2월

위 원 장

신 욱 희



부위원장

이 욱 연



위 원

전 재 성



국 문 초 록

본 연구는 2003년 이라크 전쟁 전후 영미관계를 <신뢰> 변수에 적용하여 분석한다. 영국과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부터 냉전시기에 걸쳐 함께 전쟁을 경험하고 공통된 적을 상정하는 동시에 민주주의 이데올로기를 공유하면서 안정적인 동맹관계를 이어나갔다. 특히 9.11 테러가 발생하면서 미국은 서방 국가들의 가치와 정체성에도 위협을 주는 사건으로 인식했고, 이는 이라크 전쟁을 발발시킨 하나의 계기로 작용했다. 과거와 같이 함께 전쟁을 이겨내면서 공통된 적을 상정하고 있다면 미국 주도의 안보 전략에 있어 지지하는 것이 기본적이거나, 이라크 전쟁 이후 영국은 미국의 의도에 대해 불신하게 된다. 영국은 이라크 조사 위원회를 설립하면서 이라크 전쟁이 매우 나쁜 길로 빠진 결과임을 명백히 밝히고 제2차 중동전쟁이라고 표현하며 미국 정부의 실책을 공식적으로 비판했다.

상대와 공통된 정체성, 국가 이익, 가치 등을 공유한다면 동맹 관계가 유지된다는 기본적인 국제정치 이론은 그럼에도 불안정해질 수 있는 국가 간 관계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신뢰>를 그저 감정적인 변수라고 생각해왔기 때문에, 곧 감정은 이성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이해하면서 이성을 방해하는 존재라고만 인식되었다.

본 연구는 국가도 무의식적인 감정을 가질 수 있는 동시에 상당히 전략적이고 제도적인 정책을 취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감정이 사회적 정체성을 형성하면서 국가의 정책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연구 시기를 2003년 이라크 전쟁을 기준으로 전후 영미관계 변화를 살펴본다. 당시 양국 간 관계 변

화는 <신뢰>가 안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았다는 관념적이고 동시에 상당히 인지적인 변수를 적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신뢰>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감정적-전략적-제도적 변수들을 파악하고, 이라크 전쟁을 기점으로 상대의 실제 의도가 자신이 인식한 의도와 상이하다고 판단될 경우 그에 기반하여 전략적 선택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알 수 있다. 곧 신뢰도는 자신이 가진 의도, 자신이 상대를 향한 인식, 상대가 가진 의도, 상대가 자신을 향한 인식에 따라 변화하는 변수이다. 본 연구를 통해 동맹국가라고 해서 언제나 신뢰를 얻는 것은 아니며 관계는 지속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주요어: 신뢰, 불신, 인지적 감정론, 이라크 전쟁, 영미관계

학 번: 2019-28404

< 목 차 >

I. 문제제기	1
II. 기존 연구 검토	7
1. 신뢰 개념화	
2. 신뢰 유형화	
3. 인지적 감정론	
4. 동맹이론	
III. 분석틀	18
1. 사전 신뢰도	
(1) 감정적 신뢰	
(2) 전략적 신뢰	
(3) 제도적 신뢰	
2. 최종 신뢰도	
3. 가설 설정	
4. 연구 방법 및 자료	
IV. 이라크 전쟁 이전 영미관계	30
1. 사전 신뢰도 적용	
(1) 국가 수준	
① 감정적 신뢰	
② 전략적 신뢰	
③ 제도적 신뢰	
(2) 대중 수준	
① 감정적 신뢰	

② 전략적 신뢰

③ 제도적 신뢰

2. 최종 신뢰도 적용

3. 소결

V. 이라크 전쟁 당시 영미관계.....48

1. 미국의 의도 변화

2. 영국의 신뢰도 변화

3. 최종 신뢰도 적용

4. 소결

VI. 이라크 전쟁 이후 영미관계.....56

1. 사전 신뢰도 적용

(1) 국가 수준

① 감정적 신뢰

② 전략적 신뢰

③ 제도적 신뢰

(2) 대중 수준

① 감정적 신뢰

② 전략적 신뢰

③ 제도적 신뢰

2. 최종 신뢰도 적용

3. 소결

VII. 가설 검증 및 연구의 함의.....74

참고문헌

< 표 목 차 >

표 1. 신뢰의 감정성과 합리성의 다이내믹	9
표 2. 유형별 신뢰 형성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 정리.....	18
표 3. 사전 신뢰와 상대의 실제 의도 전달 이후 최종 신뢰도의 변화.....	25
표 4. 국가별 상이한 의도 정리.....	26
표 5. 이라크 전쟁을 기준으로 각 사전 신뢰 차이 정리.....	28
표 6. NATO의 확대와 동반자 관계 구상의 발전 정리.....	37
표 7. 영국의 미국에 대한 인식도 변화.....	39
표 8. 영국의 평균적인 미국 대테러전략 찬성도.....	40
표 9 세계화에 반대하는 주체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정리.....	41
표 10. UN에서 미국의 지지도.....	42
표 11. 미국의 대외정책 변화 정리.....	44
표 12. 사전 신뢰와 상대의 실제 의도 전달 이후 최종 신뢰도의 변화.....	45
표 13. 군대를 사용할 경우 UN의 허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51
표 14. 영국의 미국 군사력에 대한 지지도.....	51
표 15.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이라크 전쟁 비교.....	62
표 16. 이라크 전쟁 당시 미국 의도에 대한 평가.....	64
표 17. 이라크 전쟁이 테러리즘에 대응하는 데 준 영향력.....	65
표 18. 이라크 전쟁 이후 미국 군사력에 대한 인식.....	65
표 19. 이라크 공격 이후 누가 더 도움을 많이 줄 수 있는가?.....	66
표 20. 만약 EU가 미국만큼 강해진다면 더 안전할 것인가?.....	66
표 21. 미국 외 독립성에 대한 인식.....	67
표 22. UN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차이.....	67
표 23. 이라크 전쟁 이후 미국에 대한 국가별 신뢰도 정리.....	68
표 24. EU가 느끼는 국가별 위협의 정도.....	69

I. 문제제기

영국과 미국은 제 2차 세계대전부터 냉전시기에 거쳐 함께 전쟁을 경험하고 공통된 적을 상징하는 동시에 민주주의 이데올로기를 공유하며 안정적인 동맹관계를 이어나갔다.¹⁾ 특히 9.11 테러 당시 단지 미국을 향한 테러가 아닌 서방 국가들의 가치와 정체성에도 위협을 주는 사건으로 인식하면서 <우리 모두가 미국인이다>라는 공통된 내부적 인식이 형성됐다. 그러나 2003년 이라크 전쟁이 발발하면서 두 국가 간 관계는 불안정해진다. 과거와 같이 함께 전쟁을 이겨내면서 공통된 적을 상징하고 있다면 기존 협력 관계를 이어나가는 것이 기본적이나, 당시 영국은 미국의 의도에 대해 불신하게 된다.

과거 미국 중심의 다자주의 공동체로 설립되었던 안보 기구들 역시 불안정해지는 모습을 보이면서,²⁾ 여전히 미국과 같은 정체성, 이익, 가치를 공유함에도 불구하고 영국은 이라크 전쟁에 대응하기 위한 독자적인 특별 부서를 만들고 미국의 군사적 개입은 결코 민주주의 확산이라는 목표라고 볼 수 없다는 것에 동의했

-
- 1) Arnold Wolfers, "Anglo-American Post-War Cooperation and the Interests of Europe," *American Politics Science Review* 36.4 (1942), pp. 656-66; Mark Sheetz, "Exit Strategies: American Grand Designs for Postwar European Security," *Security Studies* 8(4), (1999): pp. 1-43; Kydd, *Trust and Mistrust in International Relations*.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5): pp. 143; 이혜정, "자제 대 패권: 탈냉전기 미국 대전략의 이해,"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Vol 24, No. 3, (2015), pp. 171-197. (공통적으로 본 논문들은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이 점차 서방 블록에 들어오면서 유럽은 다자협력체를 재구성시키고 제도적 발전을 만들기 시작한 점을 강조한다. 여기서 미국의 패권 아래 유럽 국가들은 서로 협력하고 신뢰하고자 유럽 방위 공동체를 만들고, 영국은 미국이 제공하는 공공재를 인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미국 영향력 하에 공동체가 형성된다면 독일의 힘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다.)
 - 2) 이옥연, "미국-유럽 관계의 변화와 지속에 나타나는 양가성," 서울대학교 미국학 연구소, Vol. 39, No. 1. (2016): pp. 82 (미국의 일방적 대외정책이 국익을 저해할 수도 있다는 사실과 군사동맹은 역내 집단안보 뿐 아니라 역외 지역에서도 비효율적이라고 단정하게 된다.

다.³⁾ 특히 전쟁 이후 영국 이라크 조사 위원회 보고서에서 이라크 전쟁이 매우 나쁜 길로 빠진 결과임을 명확하게 밝히고 제2차 중동전쟁이라고 표현하며 특히 미국 정부의 실책을 비판했다.

9.11 테러사건 이후 미국 부시 행정부는 알카에다와 대량 살상무기의 불확실성을 계속 언급하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테러 공격에 대해 상당히 민감했다. 당시 미국은 테러 위협에 대한 공통된 집단 감정이 형성되어 있었고 따라서 이라크에 대한 군사 개입에 대한 지지를 쉽게 확보할 수 있었다. CIA, IAEA 등 정보 기관은 당시 사담 후세인이 핵 무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발견되었으나 그럼에도 미국이 이라크 전쟁을 감행할 수 있었던 것은 대중이 느끼고 있었던 공포와 불안일 수 있다. 미국이 이스라엘 문제에 있어 늘 우호적인 입장을 취해왔던 것이 중동에서 미국에 대한 신뢰도를 낮추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미국은 중동에 있어 자신의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해 군사적 승리가 필요했을 수 있다. 전쟁과 폭력은 민주주의 확산에 있어 결코 합리적인 선택은 아니었지만 결국 이라크 전쟁은 감행된다.

행위자는 전쟁, 대학살, 테러와 같은 사회적 현상에 대해 직접 보고 느낀 후, 이에 대한 감정이 작용한다. 이러한 감정이 곧 사회화되면서 국가의 행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국가 간 맺는 동맹, 국제사회의 확산, 다자주의 기구와 같이 협력을 강조하는 국제정치학에 있어 신체적인 감각을 넘어 인지적 요소를 분석하는 감정 연구는 필요하다. 본 논문은 감정 중에서 국가 간 협력 가능성에 주요한 <신뢰>라는 변수에 집중하고자 한다.

3) Pew Research Center에서 진행한 Global Attitude Project 비교 연구, (2004). (모집단 크기 영국인 500명을 대상으로 신뢰수준 95% 및 오차범위 ±5%로 진행된 조사를 인용한다. 여기서 이라크 전쟁 이후 미국보다 UN과 같은 다자주의적 기구가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는 설문에 있어 영국은 82%를 차지한다. 특히 이라크 전쟁이 테러리즘에 대응하는 데 준 영향력에 있어 반 이상이 오히려 위협이 됐다고 답했다.)

신뢰는 주관적이고 심리적인 감정인 동시에 국가의 이익과 비용, 선호, 상대의 의도 등에 따라 전략적으로 형성되는 합리성도 가지고 있다. 즉, 공통된 정체성, 가치, 이익을 공유하는 동맹국 사이에만 신뢰가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에 따른 비용이 더 크기 때문에 서로 제한적으로 협력하는 신뢰도 있다. 상대와 상황에 따라 신뢰의 정도와 깊이도 변화하기 때문에, 국가들은 서로 우호적인 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점진적인 협력을 하기도 한다.

본 논문은 기존 간과됐던 신뢰를 국제정치에 적용할 수 있는 분석 단위로 삼고자 한다. 먼저 개념적 이해를 시작으로 신뢰가 어떻게 사회과학에 있어 하나의 주요 변수가 될 수 있는지 검토한다. 이후 기존 신뢰연구를 살펴보면서 신뢰의 개념 및 유형을 정리하고, 이를 국제관계에 적용하여 어떻게 분석할 수 있는지 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굳건하게 이루어져 왔던 영국과 미국 간의 동맹관계에서 신뢰가 어떻게 형성, 유지, 및 변화했는지에 따라 국가 간 관계도 어떻게 달라졌는지 살펴본다. 국가들의 행위를 변화시키는 요인으로 신뢰를 유일한 독립변수로 상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많이 연구되지 않았던 새로운 이론을 통해 국제정치 현상을 고찰할 수 있다는 것에 함의를 가진다.

한국은 왜 군사적 위협을 가하는 북한보다 일본과의 외교 문제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는가? 미국은 영국의 핵무기보다 지리적으로 훨씬 멀고 기술의 현대화도 더딘 북한의 핵무기를 더 큰 위협으로 간주하는가? 미국은 왜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에 집착하면서 군사적 개입을 추진했는가?

앞서 던진 질문들에 있어 기존 국제정치 패러다임은 적국으로부터의 위협, 힘의 논리, 합리적 선택 이론 등으로 해석해왔

다. 그러나 한국이 주변 국가들 중 일본과의 작은 문제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일본의 비반성적인 태도 및 과거 제국주의에서 얻은 역사적 경험, 그리고 일본이 다시 제국화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인식과 반응일 수 있다. 미국과 함께 삼국 안보공동체를 굳건하게 만드는 것이 지역 안보에 있어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으나, 국가의 신뢰성으로 본다면 미국 주도에도 불구하고 굳건한 삼국안보체제 형성은 쉽지 않았다. 기존 동맹이론은 국가의 전체적인 힘, 공격적 군사력, 지리적 인접성, 공격적 의도 등으로 상대를 위협국가로 상정한다. 국가의 의도에 있어 객관적인 판단이 어렵고 복잡한 변수들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이 어렵지만, 미국이 북한의 핵무기를 더 강하고 현대적인 영국의 핵무기보다 더 위협적으로 느끼는 것 역시 과거 한국전쟁으로부터 얻은 적대국이라는 인식, 북한의 핵무기 사용에 대한 예측 불가능성, 내제되어 있는 불신 등으로부터 형성된 감정일 수 있다.

특히 현재 아시아 태평양은 핵 문제에 있어 매우 복잡하다. 인도와 중국,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러시아와 파키스탄까지 핵에 있어 뚜렷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 곧 국가들 간 실수, 판단의 착오, 불신 등에 의하여 상당히 큰 위협이 촉발될 수 있다. 국가는 자신의 이익과 비용을 고려하는 매우 합리적인 행위자인 동시에, 앞서 논의된 바와 같이 언제나 전략적인 계산에 의해 행동하지 않는 감정의 주체이기도 하다.

사회과학에서 논하는 행위자의 본성은 이성과 합리성에 기반한다. 국가와 사회에 자리 잡은 합리주의를 인간 본성에 내제된 것이라고 보지만, 본 논문은 감정 역시도 사회와 국가의 정체성을 구축하는 데 필수적이며, 인간 개체와 공동체를 연결하고, 나아가 국가를 형성하는 사회적 요소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이 신뢰는 중요한 변수임에도 불구하고 국제정치에

서 감정연구는 왜 집중되지 못했는가?라는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 행위자는 감정적인 존재고, 그에 따라 움직인다고 본다면 인간의 본성은 이기적이고 국가는 합리적이라고 전제하는 기존 국제정치 패러다임은 다 모순적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이성적이지 않은 행위자들의 존재론적인 범주를 처리하기 위해 여전히 국제정치에 있어 특정한 감정을 선택하여 분석하는 데 혼란이 있었다. 행위자가 특정 감정을 실제 느꼈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어렵고, 다양한 주관적 및 객관적 요인에 따라 변화하는 변수이기 때문에 하나의 이론으로 정립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행위자가 언제나 합리적이지 않다는 비판적 시각이 일어나면서 이성 중심적이었던 패러다임에도 감정적 전회(emotional turn)가 일어났다.

본 연구는 미국과 영국 간의 관계 변화를 국가 간 기존 안보 이익과 권력 변수의 차이가 아닌 <신뢰>라는 변수로 인해 발생했다고 본다.⁴⁾ 신뢰는 결국 감정인 동시에 상대와의 상호작용이다. 국가 간 관계를 설명하는 근본적인 국제정치학에서 필요한 동맹, 협력, 의존, 관계망 등에서 점차 신뢰가 중요한 변수로 자리잡고 있다.

기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같이 남북신뢰를 넘어 미중 신뢰, 동아시아 신뢰 등 신뢰를 국제정치학에서 점차 중요한 요소로 인지하기 시작했다. 신뢰연구를 통해 성찰적이고 규범적으로 사회 현상을 분석해볼 수 있다는 함의를 가지는 동시에 한계점이

4) 막스 셸러, 『동감의 본질과 형태들』, (2006); 민병원, “국제정치와 인간본성-이성, 감정, 그리고 열정,”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2018); 하홍규, “감정, 삶, 사회- 감정 사회학 이론들,”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2018); Hiski Haukkala, Carina van de Wetering, Johanna Vuorelma, Trust in International Relations: Rationalist, Constructivist, and Psychological Approaches, (Routledge, 2018), Chapter 1. (기존 신뢰를 단지 심리학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에도 적용시켜 볼 수 있는 논의들이 생겨났다.)

존재한다. 신뢰의 개념과 유형화는 상당히 다차원적이기 때문에 하나의 이론으로 발전하기 위한 간결성이 부족하다. 명확한 개념의 부재와 더불어 경험적 자료 축적이 부족한 현실이다. 여전히 신뢰를 감정으로만 정의하고 있는 심리적 연구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실증적이고 과학적인 연구 방법에 기반한 국제정치 연구에 있어 하나의 주요 연구로 발전되기 어려움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뢰는 국가 간 협력에 있어 영향을 주는 유일한 독립변수는 아니지만, 하나의 사회문화적인 변수로 자리잡을 수 있다. 국가를 합리적이고 이기적인 행위자로 전제하는 기존 국제정치 패러다임은 모든 사회적 현상을 예측하고 설명할 수 없다. 여전히 신뢰에 대한 실증적인 조작화 및 독립변수로 상정하는 데 한계점이 존재하여 관련 연구는 현저히 적은 현실이나, 이와 같이 점차 발전된 신뢰연구를 통해 본 논문은 2003년 이라크 전쟁을 기준으로 전후 영미관계 변화를 중점화하고자 한다. 영국 간 신뢰가 어떻게 변화 및 하락했는지, 이러한 신뢰의 차이가 특수 동맹관계에 있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볼 것이다. 이를 설명할 수 있어야지만 <신뢰> 변수를 통해 오늘날 국제정치가 나타내는 국가 간 협력과 갈등의 양상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II. 기존 연구 검토

1. 신뢰 개념화

먼저 기본적인 신뢰의 개념은 심리학에서 먼저 시작됐다. Deutsch(1960)는 신뢰를 특정한 사회적 환경에 따라 형성된다고 정의한다.⁵⁾ 행위자가 사회적으로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에 따라 개인 혹은 집단의 결정과정에 있어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감정적 요인으로 보았다. 때로는 신뢰를 믿음이나 신념과 유사하게 이해하기도 하고, 보편적 인간, 특정 인물 혹은 집단에 대해 공유하는 정서적 감정이라고 구분하기도 한다. 이러한 신뢰는 개인 간, 개인과 조직 간, 개인과 사회제도 간 다차원적으로 발생할 수 있고, 곧 신뢰에서 중요한 것은 사회적 환경에 따른 관계 설정이라고 주장한다.

Winberley(1972)는 행위자들이 공공재와 같이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자원에 대해 협력적이라면 신뢰가 생길 수 있고,⁶⁾ Kuhlman(1975)은 정보 공유에 있어 적극적이지 않고 관계에 있어 배신할 수 있는 두려움을 주는 행위자에 대해서는 신뢰가 생기지 않는 개념으로, 곧 행위자들이 현재 경쟁 혹은 협력 중 어떤 상황에 놓여있는지에 따라 상대에 대한 믿음이 변화하기 때문에 신뢰에 있어 행동적(behavior) 요소를 강조했다.⁷⁾ 즉, 국가 간 협력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상대에 대한 확신(confidence)이 있어야 하며, 이러한 확신은 상대와의 정보 공유를 통한 예측

5) Morton Deutsch, "The Effect of Motivation Orientation upon Threat and Suspicion," *Human Relations* (1960), pp. 123-139.

6) C. G. McClintock, "Social Motivation: A Set of Hypotheses," *Behavioral Science* 17(5), (1972), pp. 438-454.

7) Marshello Kuhlman, "Individual Differences in Game Motivation as Moderators of Preprogrammed Strategy Effects in Prisoner's Dilemma,"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975), pp. 922-931.

가능성(predictability)이 존재할 때 형성된다.

Luhmann(198)은 신뢰의 개념에 있어 명확성을 제고한다.⁸⁾ 앞서 Kuhlman이 주장한 확신과 예측가능성은 신뢰의 중요한 원인으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만약 상대의 행동이 예측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일관되게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고 있다면 그 대상은 신뢰할 수 없게 된다. 곧 신뢰의 형성에 있어 상호 간의 약속이 확실하게 선행되어야 할 것을 제언한다. 약속에 대한 선행 믿음에 따라 익숙함(familiarity)이 생길 수 있고, 신뢰는 강압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인식이기 때문에 선행 믿음으로 높아진 익숙함을 통해 신뢰가 형성된다고 보았다.

상대에 대한 의존 혹은 불확실성으로 발생하는 위험 부담에도 불구하고 신뢰는 형성될 수 있다. 행위자의 의도와 이익을 변화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위험 감수성(risk-taking)에도 행위자들은 협력한다.⁹⁾ 이에 대해 Putnam(1993)은 사회적 자본으로서 신뢰의 개념을 제시한다. 행위자들이 서로 협력한다면 거래 비용을 낮추고 투자의 효율성과 노동생산성을 증진시키기 때문에 신뢰가 정보 공유와 지식의 전달을 원활하게 만들면서 정체성과 사회발전에 도움을 준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연결망을 통해 행위자들은 안정과 질서에 있어 확실성을 얻고 상호 경제발전이 가능한 공동체의 화합을 이끌어낸다.¹⁰⁾

Hardin(1993)은 국제관계에서 신뢰를 상대와의 상호작용으로 보았다.¹¹⁾ 우선 행위자가 상대를 신뢰하기 위해 어느 정도 믿

8) Niklas Luhmann, "Trust: Making and Breaking Cooperative Relations," Familiarity, Confidence, Trust: Problems and Alternatives, (New York, 1988), pp. 94-107.

9) 0 James S. Coleman, Foundations of Social Theory,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0).

10) Robert Putnam, Making Democracy Works: Civil Traditions in Modern Ital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3).

11) Russell Hardin, "The Street-level Epistemology of Trust," Politics and

음이 생겨야 하는데 그 과정은 주관적이고, 상대에 대한 충분한 사전 정보가 없어도 자신의 주관적인 시선, 과거의 경험, 미래에 대한 예측 등에 기반하여 형성될 수 있다. 이러한 심리학적 기반에서 신뢰의 감정성을 낮음, 적당함, 높음이라는 세 가지 단계로 구분하고, 동시에 국가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신뢰의 합리성이 함께 작용하면서 형성되는 신뢰의 정도를 구분했다 [표1 참조].

신뢰의 감정성

신 뢰 의 합 리 성		높음	낮음	존재하지 않음
	높음	이데올로기적 신뢰	인지적 신뢰	합리적 예측
	낮음	감정적 신뢰	일상적인 신뢰	가능성 있는 예측
	존재하지 않음	믿음	운명에 순응	불확실, 패닉

표 1. 신뢰의 감정성과 합리성의 다이내믹

Kydd(2005)는 신뢰에 있어 위험을 감수하면서 상대와 협력하는 상황을 설명한다.¹²⁾ 죄수의 딜레마 게임을 예시로 들면서 행위자들은 상대의 선택에 상관없이 모두 배신을 하면서 얻는 이익이 가장 크기 때문에 상대가 협력을 하고자 해도 결국 배신하게 되는 상황을 곧 불신(mistrust)이라고 말한다. 반대로 스테그 헌트 게임에서 행위자들은 혼자 해결하는 것보다 상대와 협력함으로 얻는 이익이 더 크기 때문에, 상대의 선택에 있어 여전히 불확실하

Society, (1993). pp. 505-529.

12) Andrew H. Kydd, Trust and Mistrust in International Relations,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5).

지만 우선 협력하고자 하는 상황이다. 즉, 신뢰는 언제나 불확실성이 내재하기 때문에 절대적인 신뢰관계는 있을 수 없고, 상황과 관계에 따라 정도와 깊이도 변화한다고 보았다.

신뢰는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는 관계적 요소이다. 상대에 대해 두려움이라는 감정, 그에 따라 형성되는 불신도 관계 맺음을 통해 만들어지기 때문에 Colaresi(2005)는 신뢰를 국가의 성격에 따라 변화하는 것으로 구분지었다. 단지 국가들이 경쟁 관계에 놓여있다고 해서 늘 두려움과 불신을 느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 국가의 성격이 강경한지 혹은 온건한지, 어떤 종류의 갈등을 겪고 있는지, 갈등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는지 등에 따라 신뢰도가 변화할 수 있다고 보았다.

Booth/Wheeler(2008)는 국가들이 상호작용하면서 기능적 협력(functional cooperation)이 일어나는 상황을 신뢰라고 정의했다.¹³⁾ 각자의 선호, 인센티브, 목표 등에 있어 행위가 예측가능하고, 그에 따라 협력적 행동을 취할 때 비로소 신뢰가 형성된다. 이러한 과정에 있어 상호 유대감이 형성됨으로 일반적인 원칙과 패턴에 따라 서로를 대하는 행위가 결정된다.

2. 신뢰 유형화

이후 신뢰를 유형별로 정리하고, 그에 따라 각각 신뢰가 어떻게 다르게 형성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Jones/George(1998)는 조건적 신뢰(conditional trust)와 부조건적 신뢰(unconditional trust)라는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했다.¹⁴⁾ 조건적 신뢰는 양자가 서로

13) Booth and Wheeler, *The Security Dilemma: Fear, Cooperation and Trust in World Politics*, (Houndmills: Palgrave Macmillan, 2008).

14) G. R. Jones and J. M. George, "The Experience and Evolution of Trust: Implications for Cooperation and Teamwork,"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3, (1998), pp: 531-546.

적절하게 행동하고 상황에 대한 유사한 이해를 하고 있을 때 협상에 응하는 상황을 의미하고, 무조건적 신뢰는 반복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공유된 가치를 기반으로 저절로 생기는 믿음이다. 이러한 두 가지 신뢰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상호 유대감, 과거에 대한 기억, 그리고 관계망이라는 개인적인 감정과 더불어 서로를 향한 정보의 축적과 객관적인 근거에 기반한 협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Rousseau(1998)는 기존 연구자들의 신뢰의 개념을 종합하여 개인과 사회 수준으로 구분한다.¹⁵⁾ 먼저 개인 수준에서 신뢰는 관계적 신뢰(relational trust)가 존재하고, 사회 수준에서 신뢰는 제도화된 신뢰(institutional trust)의 개념을 적용한다. 개인 수준에서 신뢰의 조건으로 믿음, 의존, 유대감과 같은 정서적인 감정이 구성되어야 한다. 사회 수준에서 신뢰의 조건은 행위자들 간 상호 의존성을 강조하면서, 상호의존성의 정도는 신뢰의 변화를 유발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보았다.

원숙연(2001)은 신뢰의 다차원성에 있어 신뢰를 인지적, 감정적, 행동적 차원으로 나눈다.¹⁶⁾ 인지적 차원은 사회적 관계에 있어 신뢰 대상에 대한 지식이나 신념을 근거로 어느 대상을 신뢰할 것인지 결정하는 인지적 선택을 말한다. 인지적 신뢰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접촉의 빈도에 따른 사전 믿음과 기대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 감정적 차원은 신뢰 대상을 좋아하거나 혹은 싫어하는 느낌으로, 상대에 대한 정서적 유대감을 의미한다. 즉, 신뢰는 행위자들 간 정서적인 유대감과 상호 믿음을 통해 강화되며, 반대로 배신을 당했을 때 더 큰 불신을 느끼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감정

15) D. M. Rousseau, "Not So Different After All: A Cross-discipline View of Trust,"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998), pp. 393-404.

16) 원숙연, "신뢰의 개념적, 경험적 다차원성: 신뢰연구에 갖는 함의," 『한국정책학회보』 제10권 제3호, (2001).

적 신뢰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비인지적인 정서적 친밀감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행동적 차원은 신뢰 대상에 대한 의존성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행동적 신뢰를 상대에 대한 기대에 근거하여 어느 정도의 위험성과 비용에도 불구하고 협력하겠다는 의지이기 때문에 국가의 선호도와 이익을 위한 인지적이고 기능적인 협력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Uslander(2002)는 신뢰를 포괄적으로 윤리적 및 전략적 신뢰로 구분한다. 윤리적 신뢰는 근본적으로 윤리적 가치를 공유하고 이를 기반으로 서로를 대하는 행위가 결정될 때 형성된다고 보면서, 서로 약속에 대한 확신과 협력을 통한 상호발전 등이 만들어지는 개념이다. 반면, 전략적 신뢰는 자신의 예상대로 타인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상황으로 정의한다. 신뢰는 공통된 집단 안에서 그리고 밖에서 형성될 수 있고,¹⁷⁾ 기본적으로 이와 같은 신뢰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상대의 행동에 대한 의도 파악이 어느 정도 가능해져야 한다. 따라서 국가의 성격과 의도를 알 수 있는 정보 교류와 정보의 축적이 필수적이라고 본다.

신뢰에 있어 여러 정의를 바탕으로 Wright(2010)는 추상적, 기능적, 개인적 신뢰로 구분했다.¹⁸⁾ 추상적 신뢰는 개인 혹은 집단 간 일반적 관계에 있어 주관적인 믿음에 의해 형성되는 것으로 행위자의 의도는 정확하게 파악될 수 없지만, 공통된 가치, 정체성, 제도, 규범 등을 통해 믿음이 사회화되면서 형성된다. 기능적 신뢰는 사회적으로 의사-환자 간 관계와 같이 오로지 기능적인 관계에 있어 만들어지는 신뢰이다. 행위자들이 추구하는 목표와 이익이 부합할 때, 그리고 그에 따른 전략적인 선택과 목표를

17) Eric Uslander, *The Moral Foundations of Trust*.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2).

18) Stephen Wright, *Trust and trustworthiness*, (2010), pp. 615-627.

이루기 위한 전략적 상호관계가 만들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개인적 신뢰를 기능적 요소를 넘어 더 강한 유대 관계를 설명할 때를 의미한다. 여기서 신뢰는 어떤 개인 및 집단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 정도와 깊이에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가장 유동적이며, 집단 감정, 감정의 사회화, 의구심과 불신 등과 같은 정서적 과정이 수반된다고 본다.

3. 인지적 감정론

국제관계에서 신뢰는 기본적으로 협력과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본다. 이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를 시작한 Jervis(1976)는 인식과 오인이라는 인지적 개념을 가져와 안보 딜레마를 설명하면서 협력에 있어 야기되는 문제점을 제시했다.¹⁹⁾ 국제관계에서 신뢰는 상대에 대한 판단을 포함하고, 그에 따라 협력으로 전환된다면 신뢰가 발전된다는 것이다. 곧 국제적 협력의 변화도 관념이 중요한 역할을 하며, 국가의 이익 역시 정체성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변화할 수 있다고 본다.

협력은 공통된 이익, 정체성, 가치, 규범 등을 공유할수록 이루어지며, 국가 안보는 잠재적 적국과 서로에 대한 인식이 적이지 아닌 공존의 대상으로 바꾸는 상호관계적 노력을 통해 확보될 수 있다고 본다.²⁰⁾

Kelman(2005)은 구체적인 신뢰 형성과정에 있어 문제점을 제시하고, 적대적 관계인 국가들 사이에도 신뢰가 형성될 수 있는 논점을 제시한다.²¹⁾ 여기서 강조되는 논리는 행위자가 갈등을 해

19) Robert Jervis, *Perception and Misperception in International Politics*,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6).

20) 유현석, “국제정세의 이해“, 한울아카데미, (2001).

21) Herbert C Kelman, “Building Trust among Enemies: The Central Challenge for International Conflict Resolu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결하기 위해 협상을 하는 것은 자신에게 큰 이익이 된다는 결과가 확실할 때 가능하다는 것이다. 곧 적대적 관계에서 신뢰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위험성을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다. 특히 적대적 관계에 있어 자신이 배신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언제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더 많은 정보를 개방하거나 관대해지는 것을 꺼리게 된다. 신뢰는 항상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형성이 어렵지만 앞서 논의된 바와 같이 냉전시기 미국과 소련은 적대관계였으나 서로 협상하는 것이 더 이익이라는 판단 하에 협력이 가능했고, 이러한 상호관계적 노력을 통해 서로를 향한 인식도 점차 변화할 수 있다.

먼저 Kelman은 실행과 확신의 지속적인 접근으로 적대국 사이의 신뢰 형성에 대해선 우선적으로 확신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내재한 불확실성 때문에 상대에게 확신을 주는 것이 두려울 수 있으나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비공식적인 접근과 간단한 의제 간 협력을 시작으로 신뢰 확장의 위험성을 점진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 곧 교환관계에 있어 상대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고, 상호 이익이 증진될 것이라는 확신을 주는 실제적 행동이 필요하다. 신뢰 구축은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자신도 상대의 이익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기본적으로 적대국 사이에 존재하는 갈등에 있어 불안정한 협력을 부정하지는 않으면서, 그들 간의 응집성을 어떻게 더 끌어올릴 수 있는지의 가능성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곧 적대적 관계에서는 협력하는 것이 더 이익이 될 것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현재 미해결 상태에 놓인 갈등 때문에 협상을 두려워하기도 한다. 따라서 협상이 궁극적으로 국가 정체성과 안보를 위협하지 않는다는 상호 재확신이 필요하다.

Intercultural Relations29(6), (2005): pp. 639-650.

곧 신뢰는 비인지적이고 비이성적인 하나의 감정이 아니라, 충분히 인지하고 판단하면서 형성되는 변수임을 알 수 있다. 곧 신뢰는 국제정치가 가지는 특성으로 상호의존을 강조한다. 협력의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그러므로 협력은 제도를 통해 구축되며, 제도는 신뢰를 통해 만들어지는 개념으로 설명된다. 즉, 협력하지 않은 국가를 상대로 설득할 수 있고, 제도를 통해 예측 가능성은 증가된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볼 때, 신뢰는 같은 의도를 가진 국가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협력할 수 있고, 이는 상대를 계속 지켜보면서 점진적으로 구축되는 감정과 더불어 상대와 협력하면서 얻는 이익을 상당히 전략적으로 계산하며 만들어지는 인지적 합리성이 함께 수반된다고 본다. 상대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은 불확실 하기 때문에 제한된 협력을 통해 위협으로부터 조금 더 자유로운 안보 환경을 만들고자 상대와 점진적인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다. 곧 인지 능력과 감정이 만나 신뢰를 쌓는 과정이 형성되는데, 이는 감정이 믿음을 강화시키고 믿음은 상대에 대한 신뢰를 축적한다는 논리를 재개시킨다.²²⁾

4. 동맹이론

본 논문은 신뢰라는 감정 변수에 집중하기보다, 앞서 논의된 바와 같이 <신뢰>를 하나의 인지적 변수로 고려한다. 무정부성을 전제하는 기존 국제정치 패러다임에서 국가들은 서로의 의도에 대해 언제나 불확실하기 때문에 협력은 쉽지 않으나, 합리적이고 인지적인 판단 하에 점진적인 인지적 신뢰가 작용하게 된다.

22) Jonathan Mercer, *Emotional Beliefs*,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64, No. 1,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0), pp. 1-31.

동맹의 형성을 논함에 있어 어떻게 체결을 선택하게 되는가 역시 중요하지만, 동맹의 종결에 관한 논의들이 존재한다. 본 연구는 특수한 동맹관계도 언제나 안정적인 것은 아니라는 점을 논하고 있기 때문에, 동맹이 어떻게 유지 혹은 해체되는지를 기본적으로 주장함으로써, 동맹의 불안정성을 동시에 분석하고자 한다.

월트(1987)는 먼저 패권 국가의 존재가 동맹을 유지하게 만든다고 주장한다.²³⁾ 패권 국가의 존재로 인해 동맹 형성에 방해하는 정권을 탄압할 수 있고, 동맹국들로부터 동맹을 맺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는 인식을 제공할 수 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동맹 형성을 불안정하게 하는 국가들보다 패권 국가의 힘이 가장 압도적으로 강하다는 것이며, 이로써 패권 국가와의 양자 동맹이 가장 효율적으로 형성된다.

특히 서로에 대한 의존이 안정적으로 형성될 때 국가는 비로소 동맹을 형성한다.²⁴⁾ 예컨대 미국이 동아시아 안보를 위해 군사력을 구축하는 것에 있어, 해당 지역 국가들은 미국에 대한 의존이 강하기 때문에 곧 안정적인 동맹이 형성될 수 있다는 논리를 재개한다.

이와 동시에 NATO와 같은 제도적 요소가 안정적으로 작용하고 동맹국을 하나의 규범 하에 묶어둘 수 있는 메커니즘이 존재할 경우 동맹은 안정적으로 형성된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이 미국과 영국 역시 서로에 대한 의존이 높았던 동시에 공통된 제도가 존재했고, 미국의 패권적 지위가 작용하면서 안정적이고 특별한 동맹망이 구축될 수 있었다.

반면 동맹의 종결에 있어 기존 동맹이론은 위협에 대한 인

23) Stephen Walt, *The Origins of Alliances*, Cornell University Press, (1987).

24) Kenneth Waltz, "The Emerging Structure of International Politics," Vol. 18, No. 2, (1993).

식이 바뀔 경우를 전제하고 있다. 결국 동맹국가들은 공통된 위협 국가를 인식하고 있을 경우 안정적인 동맹관계가 형성된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반대로 위협국가에 대한 인식이 변화할 경우 동맹은 해체될 수 있다. 보통 상대에 대한 위협의 정도는 지리적 근접성, 공격능력, 인지된 상대의 의도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곧 동맹을 형성하는 가장 큰 동기는 이러한 외부 위협으로부터 자국을 보호하는 것인데, 만약 동맹국가가 적대세력을 다르게 인식하고 있다면 각자가 인식하는 위협의 정도가 변화하게 된다. 이것이 결국 상대 동맹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결국 동맹은 종결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²⁵⁾ 이에 따라 서로와 협력하면서 얻는 이익이 변화하면서 결국 상대와의 동맹망이 불안정해지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논하고자 하는 영국과 미국의 동맹에 적용해 보자면 양국은 특별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기본적으로 월트가 논하고 있었던 미국의 패권적 지위와 더불어 양국은 적대세력에 대한 공통된 위협인식과 이에 따른 규범 및 제도에 있어 협력했고, 그럼으로써 얻는 국가 이익이 확실했다. 반면 이라크 전쟁 이후 양국 관계는 흔들리는 모습을 보인다. 본 연구는 이러한 동맹의 불안정성의 원인들 중 하나로 곧 사전 신뢰의 유무가 작용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25) Stephen Walt, *Why Alliances Endure or Collapse*, Survival, Vol. 39, No. 1, (1997).

III. 분석 틀

1. 사전 신뢰도

본 연구는 다차원적인 신뢰의 개념과 유형을 크게 감정적-전략적-제도적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표2 참조]. 신뢰는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변수이다. 신뢰 유형을 이해함으로써 국제정치에서 나타나는 동맹관계의 협력과 갈등의 양상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감정적 신뢰는 관계성을 강조하면서 비인지적인 정서적 감정, 과거 상대와 협력했던 기억 및 경험, 그에 따른 주관적인 평가가 선행된다. 전략적 신뢰는 감정의 합리성을 설명하면서 상대가 목표를 이루기 위해 어떤 전략, 분석, 능력 등을 계산하고 행동하는지 평가한다. 곧 상대가 어떻게 이익과 비용을 따졌는지 고려하는 조건적이고 인지적인 신뢰이다. 제도적 신뢰는 공통된 제도와 규범 하에 형성되는 예측 가능성을 통해 상대의 행동을 억제하고 확신을 높이는 것으로, 상대가 공공재 자원에 대해 협력하는지, 상대가 어느 정도 위험 감수성을 극복하면서 협력하고자 하는지, 약속에 대한 확신을 보여주고자 공통된 제도에 가입하는지 등을 고려하면서 형성된다. 기본적으로 신뢰는 행위자들 간 형성되거나 혹은 형성되지 않음으로써 관계에 변화가 생긴다.

감정적	전략적	제도적
내부적 정체성 친밀감, 유대감 비인지적 과거에 대한 기억 주관적인 인식	이익과 비용 전략적 선택 목표 환경에 대한 분석 조건적	약속에 대한 확신 예측가능성 공통된 규범과 가치 행동 억제 공공재에 대한 협력

집단 감정 자발성	인지적 객관적인 근거	위험 감수성 극복 미래에 대한 기대
--------------	----------------	------------------------

표 2. 유형별 신뢰 형성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 정리

(1) 감정적 신뢰

Giddens(1984)는 기본적으로 Luhmann의 신뢰 개념을 인정하는 동시에, Luhmann은 신뢰가 정확하고 특정한 상황 안에서 형성된다고 하는 반면, Giddens는 신뢰를 끊임없이 지속되는 개념으로 보았다.²⁶⁾ 제도의 현대와 및 세계화를 통해 삶이 복잡해지면서 상대에 대한 확신과 신뢰의 개념을 따로 구분하지 않았다. 즉, 신뢰는 실제 행동을 통해 상대에게 확신(facework commitment)을 의미할 수 있고, 동시에 의사-환자, 부모-자녀 같이 상대에게 의도적으로 확신을 시켜주고자 하는 특정 행위 없이도(faceless commitment) 서로 의식적으로 믿고 신뢰하기도 한다. 특정 상황이나 행위에 따라 신뢰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감정이라고 보았다.

Powell(1996), Burt/Knez(1996)은 신뢰를 관계망(network)의 유형에 초점을 맞추어 행위자들 간 이루어진 접촉 시간, 접촉의 빈도, 정서적 친밀감에 따라 신뢰도가 변화한다고 보았다.²⁷⁾ 이러한 신뢰의 관계망에 있어 Cummings/Bromiley(1996)

26) Antony Giddens, *The Constitution of Society*. (Cambridge: Polity Press, 1984).

27) W. W. Powell, *Trust-based Forms of Governance, Trust in Organizations: Frontiers of Theory and Research*, (California SAGE, 1996): pp. 54-67; R.S. Burt and M. Knez, *Trust and Third-party Gossip. Trust in Organizations: Frontiers of Theory of Research*, (California SAGE, 1996): pp. 68-69.

는 행위자들이 상대에게 일관성을 보이기 위해 하는 행위적 노력, 그리고 상대를 악의적으로 배신하고 이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과 정직함 등이 포함된다고 간주했다.²⁸⁾ 곧 감정적 신뢰는 관계망의 유형, 상호 작용의 여부, 그리고 상대의 노력 등에 따라 변화한다.

Jost(2003)는 불신을 개념화하면서 두려움이라는 감정에 의해 신뢰의 형성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보았다.²⁹⁾ 행위자는 자신에게 위협이 되도록 함을 축적하는 국가 혹은 국내 권위주의 정권 하에 자유를 탄압하는 상황에 있어 두려움이 형성되고, 이것이 곧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민주주의 국가 간 군사적 위협이 상대적으로 적고 서로의 의도를 불신하지 않는 이유는 상호 정보 공유로 인해 일반적 신뢰가 비교적 잘 형성되었기 때문이라고 본다.

정리하자면, 감정적 신뢰는 관계성을 강조하면서 비인지적인 정서적 감정, 과거 상대와 협력했던 기억 및 경험, 그에 따른 주관적 평가가 선행된다. 어느 개인 및 집단이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 신뢰의 정도와 깊이에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가장 유동적인 정서적 과정이다. 특히 집단 구성원들이 느끼는 집단 정체성에 따라 외부 집단에 대한 부정적 감정이 행동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살펴볼 수 있다. 과거에 대한 기억이 집단감정, 감정의 사회화를 만들어 낼 수 있고, 이같이 내부적으로부터 형성된 정체성이 상대와 신뢰 관계에서 어떤 심리적 요소로 작용하는지 등이 분석 요소가 될 수 있다.

28) 3 L. L. Cummings and P. Bromiley, "The Organizational Trust Inventory: Development and Validation," *Trust in Organizations: Frontiers of Theory and Research*, (California SAGE, 1996): pp. 302-330.

29) 4 J. T. Jost, J. Glaser, A. W. Kruglanski and F. J. Sulloway, "Political Conservatism as Motivated Social Cognition," *Psychological Bulletin*, (2003): pp. 339-375.

(2) 전략적 신뢰

먼저 McAllister(1995)는 인지적 신뢰(cognitive)를 강조하면서 상대를 믿을 것인가, 믿지 않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선택 과정이라고 정의했다.³⁰⁾ 상대를 믿을만한 이유는 결국 상대와 과거 맺은 약속과 상호작용에서 경험했던 결과에 기초해 있다. 즉, 상대에 대한 신뢰 가능성을 논할 때는 상대와 협력할 때 있을 환경적 분석과 객관적인 기초 정보가 사전에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상대가 협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거나, 능력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근거, 자신의 이익을 위해 부도덕한 행동을 하지 않으리라는. 평가 등에 기초하여 구성된다.

Hardin(1998)은 신뢰에 있어 절대적인 관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한다. <행위자 A가 특정 행위 x에 대한 행위자 B를 신뢰하는 상황>이라는 세 가지 단계가 복합되어 있기 때문에 신뢰는 결국 행위자들의 이익과 판단에 따라 변화하는 하나의 행동적인 변수이다.³¹⁾ 행위자가 상대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상대가 자신의 이익에 위협이 되지는 않는지 등을 고려하면서 상대에 대한 신뢰 가능성이 점진적으로 형성된다.

상대를 신뢰함으로써 얻는 비용이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니다. 상대를 신뢰하고 협력함에 따라 발생하는 위험성도 존재한다. Hoffman(2002)은 신뢰는 자신의 이익도 어느 정도 희생하면서 맞춰나가는 것이라고 정의했다.³²⁾ 따라서 신뢰는 위험 감수성

30) D. J. McAllister, "Affect- and Cognition-based Trust as Foundations for Interpersonal Cooperation in Organizations,"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1995): pp.24-59.

31) Russell Hardin, "Trust in Government," *Trust and Governance*,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1998): pp. 9-27.

32) Aaron. M. Hoffman, A conceptualization of Trust in International Relations,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2002): pp. 375-

(risk-taking)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낙관적 기대(optimistic expectation), 그에 따라 생기는 자발성(willingness)으로 형성된다는 것이다.

곧 전략적 신뢰는 상대의 이익을 예측하면서 그에 따라 자신의 행동을 계산하고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생기는 신뢰라고 정의된다. 결국, 물질적인 인센티브에 따라 행위자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에 있어 얻는 보상을 철저하게 고려하며 관계를 유지한다. 이러한 분석은 Lake(1999)의 전략적 선택 이론(Strategic-choice approach)과 같은 논점을 제시할 수 있다.³³⁾ 전략적 선택 이론은 행위자들은 언제나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전제하기 때문에 자신의 선택에 의해 조직 구조가 결정된다고 본다. 즉, 행위자들의 전략적인 선택, 주변 환경에 대한 분석, 목표를 이루기 위한 능력 등을 계산함에 따라 구축되는 인지적 신뢰이다. 행위자들은 환경에 대한 분석으로 얻은 결과들에 대해 각자 선호도가 있고, 그것을 기반으로 전략적 상호관계를 유지할지 혹은 포기할지 결정한다.

(3) 제도적 신뢰

Baier(1986)는 도덕 철학에 있어 신뢰의 개념을 강조했다.³⁴⁾ 도덕 철학(moral philosophy)에서는 행위자들 간 협력을 늘 강조하고 있었던 반면 신뢰연구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사실을 비판하면서 시작된다. 도덕 철학의 궁극적인 목표는 결국 좋은 사회를

401.

33) David Lake, *Strategic Choice and International Relations*,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9).

34) Annette Baier, "Trust and Antitrust," *Ethics* 96, no. 2 (January 1986): 231-260.

만드는 것인데, 여기서 좋은 사회는 행위자 모두에게 궁극적인 이득이 되는 것에 자발적으로 협력하는 상태라고 정의한다. 따라서 신뢰는 행위의 결과뿐 아니라 행위의 과정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로 보고, 행위자들 간 서로 맺은 약속을 확실하게 지킬 것인지 (promise-keeping)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Coleman(1990)은 행위자들 간의 신뢰는 일반적일 수 있고 상호 작용하면서 확장될 수 있는 개념으로 보았다.³⁵⁾ 상대와 맺은 포괄적인 조약 및 동의 하에 각자의 이익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협력하는 상황을 신뢰라고 구분했다. 즉, 특정 상황에 대한 의존 (reliability)이 신뢰라는 감정으로 넓어진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상대에 의존하는 경우 위험 부담이 크기 때문에 신뢰 형성에 대한 개인의 동기는 약화될 수 있다. 특히 상대가 의존할 수 있는 존재인지에 대한 정확 정보를 얻기 어렵고, 행위자의 의도와 이익은 변화하기 때문에 언제나 관계를 깨고 배신할 수 있다는 위험성은 함께 한다. 이에 대해 Putnam(1993)은 사회적 자본으로서 신뢰의 개념을 제시한다. 행위자들이 서로 협력한다면 거래 비용을 낮추고 투자의 효율성과 노동생산성을 증진 시키기 때문에 신뢰가 정보 공유와 지식의 전달을 원활하게 만들면서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에 도움을 준다는 개념이다. 따라서 사회적 연결망을 통해 행위자들은 안정과 질서에 있어 확실성을 얻고 지속적인 경제발전이 가능한 공동체의 화합을 이끌어낸다면 결국 신뢰가 확산된다는 것이다.³⁶⁾

제도적 신뢰는 규칙과 정체성을 강조하면서 행위자들이 서로 공유하는 가치, 정체성, 이익, 선호, 규범 등을 통해 신뢰가 형성된다고 본다. 특히 협력에 있어 주요한 구성주의적 아젠다인 정

35) Coleman(1990).

36) Robert Putnam, Making Democracy Works: Civil Traditions in Modern Ital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3).

체성과 규범도 곧 감정적 요소를 포함하기 때문에 그로부터 형성된 감정은 사회적 교류를 통해 만들어지고 곧 신뢰가 형성된다는 논리이다. UN 혹은 NATO와 같이 공통된 정체성, 이익, 그리고 가치에 따라 형성된 다자기구를 가장 대표적인 예시로 들 수 있다. 행위자들 간 가지고 있던 내재적인 특성들이 사회화되는 과정에 있어 일반적 신뢰가 작동하고,³⁷⁾ 이러한 사회적 환경 안에서 행위자들 간에 행동 억제와 약속에 대한 확신을 얻게 되면서 제도적 신뢰가 만들어진다.

2. 최종 신뢰도

먼저 상대에 대한 감정적-전략적-제도적 신뢰가 사전에 형성될지 여부가 결정된다. 이러한 신뢰도는 상대의 실제 의도가 전달된 이후 변화하며, 이후 최종 신뢰도가 결정된다 [표3 참조].³⁸⁾

본 논문이 정리한 표에 따르면 최종 신뢰도는 상대의 실제 의도가 다를 경우를 전제하고 있다. 곧 이에 따라 최종 신뢰도는 기존 사전 신뢰가 형성 혹은 형성되지 못할 당시 보다 기본적으로 모두 하락하나, 본 논문이 주장하는 바는 실제 의도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라크 전쟁 이전 영국과 미국 간의 안보적 협력 관계는 계속 유지되었다는 점과, 이라크 전쟁 이후 양국 간 협력 관계는 불신이 쌓여졌다는 점을 강조한다.

곧 사전 신뢰의 유무에 따라 상대의 실제 의도가 기존과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 협력관계는 변화한다는 것이다.

37) Torsten Michel, "Time to Get Emotional: Phronetic Reflections on the Concept of Trust in International Relations,"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Vol.19(4), (2013): pp. 869-890.

38) Kydd(2005), pp. 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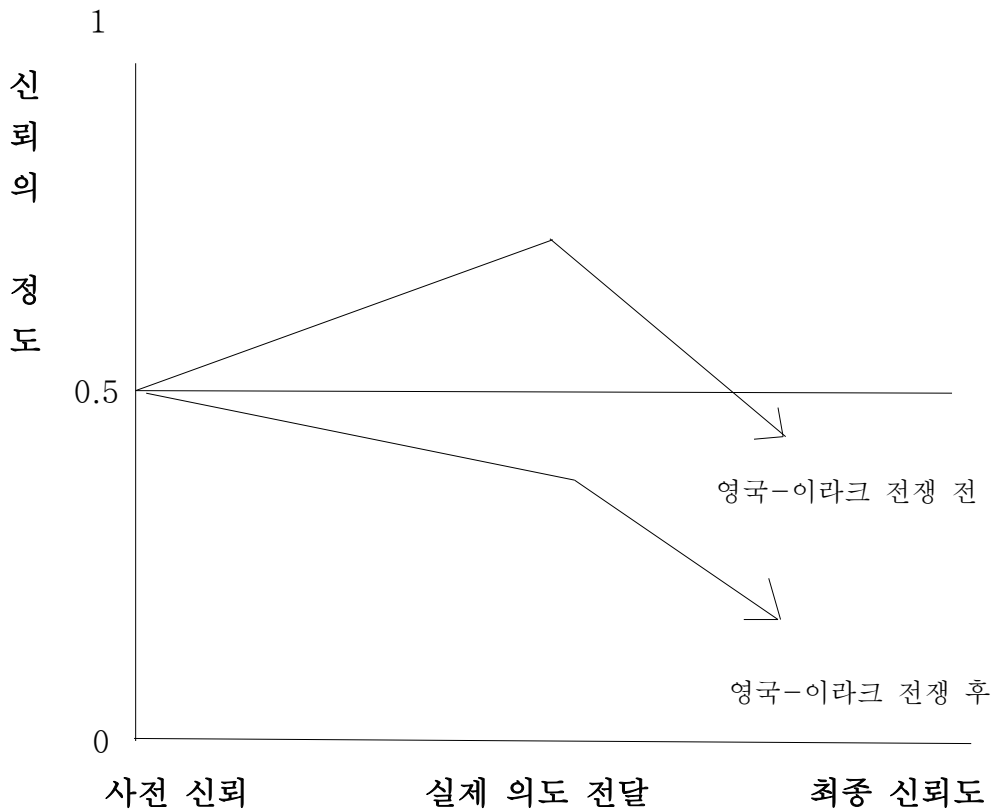


표 3. 사전 신뢰와 상대의 실제 의도 전달 이후
최종 신뢰도의 변화³⁹⁾

3. 가설 설정

[독립변수: 신뢰 -> 종속변수: 국가 간 관계 변화]⁴⁰⁾

39) Andrew Kydd, "Game Theory and the Spiral Model," *World Politics*, Vol. 49, No. 3, (1997): pp. 371-400. (행위자 별 팽창 추구 의도를 가질 수 있는 가능성 (y1), (y2), 안보 추구 의도를 가질 가능성 (1-y1), (1-y2), 행위자가 상대에게 느낀 감정과 의도가 맞지 않을 때 (e), 반대로 행위자가 상대에게 느낀 감정과 의도가 맞을 때 (1-e); Kydd(2005)는 상대의 의도가 실제와 상의할 경우를 기본으로 전제하여 사전 신뢰가 최종 신뢰도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 지 설명함.

40) 기존 안보 이론에서 설명하는 이익과 권력 변수를 통제하고 신뢰가 국가 간 관계에 어떤 변화를 주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그러나 전략적 신뢰에 있어 여전히 국익 변수는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완전히 통제하기보다, 신뢰라는 변수가 감정적 요소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매우 전략적이고 제도적이라는 것을 동시에 설명하고자 한다.

H1: 사전 신뢰가 형성되었던 이라크 전쟁 이전 영국의 미국에 대한 최종 신뢰도는 상대의 실제 의도 전달 이후 평균 이하로 하락했으나, 테러와의 전쟁과 같은 단기적 협력은 가능하다.⁴¹⁾

H1-1: 사전 신뢰가 형성되지 못했던 이라크 전쟁 이후 영국의 미국에 대한 최종 신뢰도는 상대의 실제 의도 전달 이후 더 크게 하락했고, 신뢰 형성 시기 이루었던 단기적 협력에도 더 이상 참여하지 않는다.

H2: 이라크 전쟁 당시 사전 신뢰가 형성되지 못했던 영국의 미국에 대한 최종 신뢰도는 미국의 영국에 대한 최종 신뢰도 보다 더 낮다.

	영국이 생각한 미국의 의도	미국이 생각한 실제 의도
전쟁 이전	민주주의 확산, 서방 국가 가치 보호	미국의 예외주의
전쟁 이후	중동 석유, 무슬림 정부에 대한 대응, 이스라엘 보호	미국의 패권주의

표 4. 국가별 상이한 의도 정리

41) 2002년 1월 29일 의회연설에서 부시 대통령은 전쟁의 목표를 확장하고 테러와의 전쟁은 개시되었다고 재차 확인한다. 영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승인 없이 진행될 수 있는 군사적 개입에 있어 미국과 세계관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지했고, 일방주의적인 부시 행정부의 전략, 비민주적 의도와 국익의 차이 등이 일어났지만 이라크 전쟁에 협력한다.

신뢰도는 자신이 가진 의도, 자신이 상대를 향한 인식, 상대가 가진 의도, 상대가 자신을 향한 인식에 따라 변화하는 변수이다. 동맹국가라고 해서 언제나 신뢰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며, 국가의 의도와 인식도 변화하는 유동적인 과정이라고 본다.

본 논문은 상대의 의도가 사전 신뢰가 형성될 시기와 다를 경우를 가정하고 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최종 신뢰도는 모두 하락하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라크 전쟁을 기준으로 영국의 미국에 대한 최종 신뢰도는 가장 크게 하락한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한다.

곧 <신뢰>라는 변수를 2003년 이라크 전쟁 이후 영미관계 변화에 적용한다. 먼저 이라크 전쟁 이전 2001~2년 시기를 살펴볼 때, 사전 신뢰를 국가 수준과 대중 수준으로 구분하여 당시 <신뢰>라는 변수가 각 국가 차원에서, 그리고 대중 차원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 분석한다. 이를 통해 당시 민주주의 및 내부적 정체성, 서로와의 협력을 통해 얻는 이익, 그리고 공통된 NATO와 같은 국제 안보 기구 등을 통해 영국과 미국 간 감정적-전략적-제도적 신뢰가 어떤 과정을 통해 형성되었는지 추적한다. 이러한 구분된 사전 신뢰를 바탕으로 최종 신뢰도 그래프에 적용하여 볼 때, 사전 신뢰가 형성되었던 영국은 미국이 실제 의도와 다른 모습을 보일 경우 얼마큼 하락했고, 그에 따라 어떤 안보 전략을 펼쳤는지 분석해볼 수 있다.

다음으로 이라크 전쟁 이후 2003~4년 양국 간 관계변화를 살펴본다. 이라크 전쟁 이전과 같이 사전 신뢰를 국가와 대중 수준으로 구분한 뒤 이라크 전쟁에 대한 미국의 실제 의도 평가, 패권국으로서의 군사적 지위 하락, 다자기구에 대한 의존 등이 영국 정부와 대중의 사전 신뢰를 모두 불안정하게 만든다. 이를 최종 신뢰도 그래프에 적용해서 볼 때, 사전 신뢰가 형성되지 못했던

영국의 최종 신뢰도는 더 크게 하락 한다. 본 결과를 통해 사전 신뢰의 여부가 영국과 미국으로부터 어떻게 다른 안보 노선을 택하게 하는지 비교해볼 수 있다 [표5 참조].

	감정적	전략적	제도적
이라크 전쟁 이전	민주주의 정체성 정서적 유대감 친미감정	미국의 패권적 지위 미국에 대한 의존 상호이익과 국익 상승	NATO의 형성 지역 협력체 강화
이라크 전쟁 이후	세계관에 대한 인식 차이 미래에 대한 불신 반미감정	미국의 패권적 지위 하락 독일의 안정적 유럽체제 국익에 대한 우려	유럽의 독자적 방어체제 상이한 목표 미국의 일방주의

표 5. 이라크 전쟁을 기준으로 각 사전 신뢰 차이 정리

본 연구는 2003년 이라크 전쟁 시기를 기준으로 사전 신뢰가 형성되었던 전쟁 이전 시기를 신뢰, 이후 시기를 불신으로 구분한다. 곧 서로 상호적 신뢰를 하고 있었던 이라크 전쟁 이전 시기 서로에 대한 실제 의도가 상이하다는 점을 파악한 후 각 국가의 최종 신뢰도는 얼마나 하락했는지, 또한 상호 신뢰를 하지 못하고 있었던 이라크 전쟁 이후 시기 서로에 대한 실제 의도 파악 이후 이전보다 얼마나 더 하락했는지, 그에 기반하여 어떻게 다른 안보 전략을 택했는지 비교해볼 수 있다.

4. 연구 방법 및 자료

본 연구는 사례연구를 통해 단순한 역사적 기술을 넘어 각 시기적 단계에서 변수의 영향을 살펴보는 분석적 설명을 제시한다. 연구 분석 단위는 국가 수준과 대중 수준으로 나누어 관련된 1차 및 2차 자료를 토대로 문서 연구 방법을 활용한다. 먼저 1차 자료는 정부 회의록, 주요 행위자들의 연설문, 정책과 관련된 현지 언론 기사들을 참고하여 <신뢰> 변수가 어떻게 관념적으로 받아들여졌는지 살펴본다. 실제 Trust 혹은 Mistrust 단어 사용 등에 따른 서로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 이라크 전쟁 시기를 기준으로 어떻게 변화했는지 알 수 있다.

다음으로 2차 자료는 신뢰도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여론조사, 미디어 콘텐츠 등에 있어 경험적 사회과학 연구를 수행하는 Pew Research Center 자료를 인용한다. 이라크 전쟁 수행 전후를 기준으로 대중이 영미관계에 있어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 이에 따라 국가 간 관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추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라크 전쟁 이후 대중은 얼마만큼 안보 불안을 느꼈는지, 이라크 전쟁 이후 미국의 군사력이 강해졌다고 느끼는지, 이라크 전쟁이 곧 미국이 민주주의를 추구하기 위함이었는지, 이라크 전쟁이 테러리즘에 대응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는지 등의 설문을 통해 대중의 신뢰도를 파악하고자 한다. <신뢰>는 주체 간의 상호작용이기 때문에 각 국가의 정부와 대중 간 어떤 상호적 관계를 통해 신뢰도가 변화했는지 살펴본다.

IV. 이라크 전쟁 이전 영미관계

먼저 미국과 영국 간 어떻게 사전 신뢰를 형성하고 어떤 신뢰도를 가지고 있었는지 살펴보기 위해 이라크 전쟁이 발발하기 이전 2001~2년 시기를 본격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당시 미국은 9.11 테러리즘을 경험한 직후였고, 이에 기반하여 변화한 미국의 안보 전략에 있어 양국 사이에 감정적-전략적-제도적 신뢰에도 변화를 나타냈다.

먼저 국가 수준에서 양국 간 사전 신뢰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비교하기 위해 정부 문건, 회의록 등을 살펴보면서 정부 간 어떤 과정을 거쳐 신뢰가 형성되었는지 살펴본다. 이후 대중 수준에서 Pew Research Center에서 진행한 Global Attitude Project 자료를 활용하고자 한다.⁴²⁾ 모집단 크기 미국인 1,000명 대상으로 신뢰수준 95% 및 오차범위 $\pm 3.5\%$, 그리고 영국인 500명을 대상으로 신뢰수준 95% 및 오차범위 $\pm 5\%$ 로 진행된 조사를 인용한다. 본 논문의 주체는 국가와 대중을 대상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당시 양국의 신뢰도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진행한 설문 프로젝트를 함께 자료로 사용할 것이다.

1. 사전 신뢰도 적용

(1) 국가 수준

① 감정적 신뢰

42) 여론조사, 인구통계연구, 미디어 콘텐츠 분석 등 사회과학연구를 기본적으로 수행하는 미국 싱크탱크. 이라크 전쟁 이전과 이후 진행했던 유럽 국가들의 미국에 대한 신뢰와 불신의 정도 연구.

먼저 냉전기부터 2003년 이라크 전쟁 이전까지 미국과 영국의 협력 가능성은 상당히 안정적이었다. 당시 미국은 세계 초강대국으로서 전쟁 이후 경제 재건에 박차를 가했고 군사적 및 경제적 힘의 우위가 압도적이었다. 패권국가의 영향력은 국가 간 협력 가능성을 높였고, 특히 사전 신뢰를 얻고 있었던 패권국가일수록 협력이 증진된다.⁴³⁾

과거부터 패권국으로서 미국은 영국과의 특별한 동맹관계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 영국 역시 공통된 민주주의, 인권, 자유의 가치를 공유하는 초강대국 미국에 대한 의존이 높았고, “특별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효과적이었다. 이후 2001년 미국이 테러 공격을 받으며 패권국의 위치가 흔들리는 듯했으나, 영국은 곧 서방 국가에 대한 공격이라며 미국의 안보 전략을 적극적으로 지지했다.

2002년 1월 29일 미국 연례 의회연설에서 부시 대통령은 “전쟁의 목표를 확장했고, 테러와의 전쟁은 이제 막 개시되었다”고 재차 확인한다.⁴⁴⁾ 테러리스트의 네트워크를 직접 공격할 뿐만 아니라, 테러 활동을 지원하는 정권들이 미국과 미국 동맹국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당시 미국의 안보 전략은 자국에 대한 직접적인 테러와 더불어 민주주의의 세계적 확산에 위협을 주는 모든 네트워크에 관여하는 것이었다. 이 같은 전략은 영국을 통해 내부적 정체성을 느끼게 했고 2002년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에도 확고한 지지를 보내며 동참한 바 있다.

2002년 3월 영국 토니 블레어 총리는 “이라크는 대량살상 무기 비축과 관련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4월, “우리는 후세인이 대량의 생화학무기를

43) Kydd(2005), pp. 137.

44) 장훈, 미국 정당정치의 변동과 신보수주의, <네오콘 프로젝트>, (서울: 사회평론, 2005).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핵과 최장 거리 핵탄두 미사일에 손대려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부시 대통령 역시 “사담 후세인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위험인물이다. 그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은 자유를 사랑하는 국가들의 임무이다. 이것은 바로 미국이 앞으로 할 일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9.11 테러 이후 부시 행정부가 발표한 4년 주기 국방검토 보고서(QDR: Quadrennial Defense Review Report), 2002년 핵태세 검토보고서(NPR: Nuclear Posture Review)와 미국 국가안전보장 전략 보고서(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등을 통해 미국이 적들에 대해 핵무기를 선제공격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천명했다.

미국 국가안보전략보고서에 따르면 세 가지 원칙이 강조되는데 첫째, 미국의 전 세계에 걸친 군사적 지배력을 영구화하고 이를 통해 어떠한 국가도 미국에 대해 도전 또는 위협을 할 수 없도록 한다. 둘째, 미국의 국가 안보, 외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국의 군대 또는 기지, 또는 우방국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될 수 있는 국가 또는 세력에 대해 전 세계의 어느 곳에서든지 선제공격공격을 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춘다. 셋째, 미국의 시민들이 국제형사재판에 회부되지 않을 면책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국가안보전략에 대해 에드워드 케네디(Edward M. Kennedy) 상원의원이 "행정부의 계획은 다른 어떤 국가도 받아들일 수 없는 21세기형 미국 제국주의를 표방하고 있다"고 논평한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9·11 테러 이후의 미국의 국가안보전략은 과거와는 달리 매우 공격적이고 제국주의적인 방향으로 변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2003년 3월, 하원에서 이라크 사태를 논의할 당

시, 블레어 총리는 “영국과 세계가 21세기 안보 위협에 직면하는 방식, 유럽과 미국의 관계에 관여하는 방식을 결정할 것”이라고 명백히 밝혔다.⁴⁵⁾ 곧 그의 선택은 국제정치의 패턴을 더 강조한 것으로 보이며, 1992년 당시 이라크가 이전에 신고하지 않은 대량살상무기를 인정한 부분을 덧붙였다.

영국 정부는 미국의 단독적인 군사행동에 있어 우려했으나, 국제적인 지지가 있다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다. 결국 미국과의 특수한 동맹관계를 이어가면서 미국이 주장하는 가치와 이념에 동의하는 것이 공통된 안보 위협을 상정하는 국가로서 해야 할 도리라고 여겼다. 곧 칠콧 보고서는 당시 블레어 총리는 미국과 동맹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가치있을 것이라는 판단과 동시에, 미국의 대테러전략 중 하나라고 판단하여 레짐 변화 시도에 있어 감정적 지지를 보였다.⁴⁶⁾

② 전략적 신뢰

영국과 미국은 냉전시기부터 경제적 협력을 강화해왔다.⁴⁷⁾ 당시 양국은 공통된 적을 상정하면서 군사적 및 경제적 협력을 이어갔고, 소련의 붕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협력관계를 유지해왔다. 동맹국으로서 서로의 역할은 자국의 이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면서 점차 안정적인 전략적 신뢰를 형성해갔다.

곧 양국은 상호협력하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확실했고 미국의 경제적 패권으로 인해 전략적인 상호관계가 이어질 수 있었다. 곧 테러리즘이 발발하면서 사전에 형성되었던 경제적 협력

45) Guardians, “Full TextL Tony Blair’s Speech,” (2003), available at <https://www.theguardian.com/politics/2003/mar/18/foreignpolicy.iraq1>.

46) The Report of the Iraq Inquiry, Committee of Privy Counsellors, (2016), pp. 9

47) Walter Russell Mead, “America’s Sticky Power,” Foreign Policy I41 (March/April, 2004), pp. 46–53.

이 작동했고, 미국이 테러리스트로 의심되는 행위자들을 체포할 때마다 안정적인 지지도를 보였다. 테러의 확산이 미국이 아닌 자국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불안감과 위협이 영국으로부터 미국을 의존하게 만들었다.

2002년 10월 의회에서 유엔 승인 없이 선제공격을 할 수 있는 전권을 위임 받고 국가안보전략을 내세웠다.⁴⁸⁾ 자국과 세계의 안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선제공격이 가능하다는 것을 공식화한 것이다. 테러 참사는 미국은 물론 서방 국가들 모두에게 확대될 수 있는 군사적 위협이었고, 이들이 정의한 불량국가들이 대량살상무기를 추가로 개발 및 획득하는 것을 대비하고자 했다.

이라크 전쟁 침략 1년 전인 2002년 3월, 영국은 침략의 잠재적 결과를 냉철하게 살펴보았다. 국방정보국(DIS)으로 군 정보기관이 이라크 침공이 가져올 결과에 대한 내부 보고서를 발표했고, 그 내용은 눈에 띄게 침공의 부정적 결과를 예측했다. 미국의 동맹국들 역시 이라크를 공격하고 난 후 재건하는 것은 어렵고 위험한 일이라고 경고했으나, 결국 영국의 지지를 받아 이라크를 침공한다. 부시 대통령과 가진 비공개 회담에서 블레어 총리는 이라크 전쟁에 있어 군사적 지원을 가할 것을 약속했고, 유엔과 IAEA 사찰단이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지켜보겠다는 영국의 의사를 포기했다.

칠콧 보고서에 따르면, 블레어 총리의 회고록에는 사담 후세인을 위협으로 보는 미국의 기본적인 분석에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⁴⁹⁾ 강력한 파트너, 그리고 특별한 관계에서 미국과 영국은 이라크 문제를 정기적으로 논의했다. 당시 미국의 세계 정치적 힘의 우위에 있어 영국은 동맹국으로서 미국의 전쟁 프로젝트를 지

48) 광정연, “독일에서의 이라크 전쟁 관련 미국 담론,” 『독일어문학』 84, (2019), pp. 35-56.

49) The Report of the Iraq Inquiry, (2016), pp. 9

지했고, 미국과 협력하지 않음으로 얻는 비용을 계산하며 전략적인 안보 정책을 꾸린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점은, 영국은 이라크 전쟁을 감행한다면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불이익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국방정보국은 전쟁 이후 재건에 들어가는 비용도 막대하며, 미국에게 군사적 지원을 하는 것 자체가 전쟁에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비판도 있을 것이란 경고가 있었다. 그럼에도 영국은 미국과의 협력을 선택하며 세계 초강대국인 미국의 안보 전략에 동참하는 것이 곧 국가의 이익이 될 수 있다는 특별한 관계 유지에 힘쓴 것으로 보인다.

이후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1441호가 채택된다.⁵⁰⁾ 결의안 1441호에 있어 미국의 목표는 자발적인 이라크의 무장 해제였고, 영국은 프랑스와 독일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전략에 함께 하고자 했다.⁵¹⁾ 미국의 알방주의적인 안보 전략을 점차 인지하기 시작했으나 미국이라는 패권국가와 협력함으로써 얻는 이익과 비용을 계산했을 때 협력의 이익이 확실했다. 2002년 7월 28일, 블레어 총리는 부시 대통령에게 장문의 편지를 보내면서 “당신과 뭐든 함께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③ 제도적 신뢰

미국의 대테러전략 이전 영국은 새로운 레짐에 있어 국제적 지지를 중요시하게 생각했다. 곧 사담 후세인 정권도 국제기구가 협력한다면 대량살상무기를 만들 수 있는 통로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

50) 이유진, “9·11 테러 이후 미국의 대외정책과 미-유엔관계 변화,” 동아시아 연구 9권 9호, (2004), pp. 39-62.

51) 최수경, “미국과 유럽연합의 안보협력과 갈등,” 사회과학연구 15, (2004), pp. 215-237.

판단했다. 곧 2001년 2월, 미국과 영국은 중동 지역을 조금 더 지지하고 강화할 수 있는 제도 구상에 동의했고, 사담 후세인 정권을 압박할 수 있는 수단으로 공통된 국제 규범과 제도를 만드는 것에 힘썼다.⁵²⁾

2002년 7월 미국 입법 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NATO 동맹국들과 상호 미사일 방어체계 프로그램에 있어 양자적인 협상을 진행해왔고, 같은 해 11월 프라하에서 열린 회담에서는 테러리즘에 대한 새로운 국가 안보 공격을 막기 위한 미사일 체계 설립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2004년 겨울까지 장거리 미사일을 발전시키는 것을 약속하면서,⁵³⁾ 9.11 사태 이후 미국은 NATO 회원국 확대, 상호 방위 및 공동 안보를 강화시키고 또 다른 테러리즘을 막기 위한 미래 전략과 역할에 있어 논의했다.⁵⁴⁾

영국과 미국은 자국 주도의 전쟁에 있어 국제사회의 지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 특히 공통으로 양국이 가입한 NATO의 규범과 제도에 있어 서로의 돌발적인 행위를 억제하는 동시에 다른 국가들의 참여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 믿었다.

특히 미국은 자국의 예외주의와 더불어 유럽국가들과의 내부적 감정과 정체성을 강조하고 확산시키는 국제주의 노선을 발현하고자 했다.⁵⁵⁾ 미국은 NATO의 영향력을 인지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유럽의 안보를 형성하는 동시에 지구적으로 확장하는 핵심적인 전략이 되어야 할 것을 강조한다. 테러리즘이 지구적 차원의 안보 영역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 위한 다자주의적 동반

52) The Report of the Iraq Inquiry, (2016), pp. 14.

53) Committee on Armed Services, "The Future of the NATO," (March 27, 2003), pp. 48.

54) Committee on Armed Services, "The Future of NATO," (February 28, 2002), pp. 2.

55) 마상윤, "미국 신보수주의의 역사적 배경: 탈냉전에서 이라크전쟁까지," 《네오콘 프로젝트: 미국 신보수주의의 이념과 실천》. (서울: 사회평론, 2005).

자 관계를 만들어낸 것이다.⁵⁶⁾

미국 주도의 안보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자 NATO는 2002년 11월 정상회담을 통해 군사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채택하였는데, 프라하 능력 공약, NATO 대응군 창설, 군사지휘구조의 효율화가 포함되었다.⁵⁷⁾ 이와 더불어 동반자 국가들과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일련의 구상들이 승인되었다 [표 6 참조].⁵⁸⁾

년도	명칭	범위
2002년	NATO-러시아 이사회	양자 차위의 특별한 동반자 관계
2002년	NATO-우크라이나 이사회	
2003년	NATO-EU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NATO-EU

표 6. NATO의 확대와 동반자 관계 구상의 발전 정리⁵⁹⁾

이와 같이 미국은 영국과 함께 2001년 10월 아프가니스탄에서 항구적 자유작전(Operation Enduring Freedom)을 개시하여 모든 군사력을 동원한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활동을 벌였다. 양국은 공통된 초기 목표 하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지속적인 대테러 및 인도주의적 구호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여건을 조성했다. 이후 제1차 대테러전이 거의 종결된 직후 2002년 1월 국정연설에서 미국

56) 이수형,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지구적 동반자관계,” 『국방연구』,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제 53권 제1호 (2010), p. 1-21.

57) 이수형(2010), pp. 7.

58) “Prague Summit Declaration,” issued by the Heads of States and Government participating in the meeting of the North Atlantic Council in Prague, Czech Republic, 21, ,(2002).

59) 이수형(2010), pp. 8.

은 NATO와의 관계가 앞으로 오랫동안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고 세계전략의 우선순위로 삼았다.⁶⁰⁾

2002년 1월 29일 미국 연례 의회연설에서 부시 대통령은 테러리스트의 네트워크를 직접 공격할 뿐만 아니라, 테러 활동을 지원하는 정권들이 미국과 미국 동맹국들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 언급한 바 있다.⁶¹⁾

본 논문은 곧 미국 주도의 NATO가 제대로 역할 수행을 한다면 참여국은 미국의 안보적 패권 하에 보호받을 수 있을 거라 말했고, 이는 곧 영국의 미국에 대한 지지를 강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본다. 공통되게 가입된 NATO를 통해 상대의 행동을 모니터링하고 돌발 행동을 억제할 수 있다는 점에 있어 양국은 제도적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본다.

(2) 대중 수준

본 논문은 국가를 기본적인 분석 단위로 삼고 있다. 그럼에도 사전 신뢰 형성에 있어 대중의 영향력을 보는 것은, 대중의 감정적 인식이 사회화되면서 이가 곧 국가의 최종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 특히 이라크 전쟁 수행에 있어 대중의 인식 변화는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며, 본 논문은 신뢰의 감정성과 합리성에 있어 국가와 대중을 동시에 보고자 한다.

① 감정적 신뢰

이라크 전쟁 이전 미국과 영국은 공산주의 확산을 막기 위한 공통

60) 국방정보본부 역, 『2002년 미 국방연례보고서』, (2002), pp. 25~26.

61) 장훈, 미국 정당정치의 변동과 신보수주의, <네오콘 프로젝트>, (서울: 사회평론, 2005).

된 가치를 형성했던 과거 냉전시기 굳건한 협력 관계를 기본적으로 이어나가고 있었다. 민주주의 이데올로기와 시장경제체제를 기반으로 소련이라는 공통된 위협국가에 대응해왔고 이러한 안보 동맹은 미국의 대테러전략 이후 더욱 강화됐다.

양국 간 상호 인식은 어떠했는지 분석해보면 이라크 전쟁 이전 서로에 대한 인식은 긍정적이었다.⁶²⁾ 냉전시기부터 이어져 왔던 가치와 이념에 따라 서로에 대한 의존이 증가했고, 관계망의 정서적 감정 역시 비교적 친밀했다고 본다 [표7 참조].

	2000년	2002년	2003년
영국	83%	75%	48%

표 7. 영국의 미국에 대한 인식도 변화

앞서 표에 설명된 바와 같이 영국 대중이 미국에 대해 느꼈던 감정적 신뢰는 2003년 이라크 전쟁 이후 급격히 하락함을 알 수 있다. 냉전시기부터 이라크 전쟁 이전까지 양국은 특별한 관계의 동맹망을 유지하면서 상대국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도는 2001년 테러 위협을 겪은 이후에도 꾸준히 유지됐다. 그러나 대중이 미국에 대해 느끼는 선호도를 신뢰라는 감정을 측정할 수 있는 인식도라고 본다면, 2000년대에 있었던 83%에 육박하는 긍정적인 인식도 이후 2003년 급격히 48%로 하락하는 것을 볼 때, 본 논문은 이라크 전쟁 이전 양국이 공유한 감정적 신뢰는 존재했다고 본다.

영국 대중은 미국과 공유하는 자유주의 이념과 가치, 서방

62) The Pew Research Center, Views of a Changing World, (Washington D.C., June 3, 2003).

국가들의 영향력 확산, 테러세력 방지 등의 공통된 위협인식과 더불어 서로에 대한 긍정적인 선호도가 존재했다. 특히 이라크 전쟁 이전 양국은 냉전시기부터 이어져 왔던 특별한 관계를 계속 유지했음을 알 수 있다.

본 논문은 대중의 선호도 자체를 신뢰를 측정하는 유일한 단위라고 보지는 않으나, 2003년을 기준으로 급격히 하락하는 인식도를 볼 때 이라크 전쟁을 전후로 하여 양국 간 관계에 변화가 있었다고 추정한다.

② 전략적 신뢰

대중은 미국의 국가 안보 전략이 자국의 안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상호발전적 인식과 더불어 미래에 대한 기대를 형성할 수 있다. 즉, 미국과 협력함으로써 얻는 이익, 공공재 자원의 공유, 미국의 주도적 노력에 대한 국가적 성격의 정의 등으로 인한 대중 내 전략적 협력이 가능했다. 영국을 포함한 유럽의 전반적인 미국의 안보 전략에 동의했음을 알 수 있다 [표8 참조].

	2002년
영국	89%

표 8. 영국의 평균적인 미국 대테러전략 찬성도

미국과 협력하여 맺어진 자유시장경제와 자본주의, 국가 간 함께 맺어진 경제기구 등을 통한 세계화의 흐름에 있어 자국이 얻는 이익이 확실했기 때문에 영국은 미국 주도의 세계은행, IMF, WTO 등을 지지했다. 특히 안보 정책에 있어 미국의 대테러전략

찬성도는 약 90% 가까이 차지하면서 대다수의 대중이 이라크 전쟁 이전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에 긍정적인 인식도가 있었음을 시사한다.

곧 국가 간 상호발전이 있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서로와 협력하면서 얻는 이익과 비용을 고려한다. 미국과 영국은 세계화 추진을 위해선 공통된 동맹망을 안정적으로 설립하는 것이 국익이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했고, 대중은 이에 따라 반 세계화 및 반 다자주의를 주장하는 주체들에 있어 대부분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표9 참조].

	부정적 인식도
미국	81%
영국	80%

표 9. 세계화에 반대하는 주체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정리

양국은 공통적으로 추진하는 자유주의의 세계화에 있어 찬성했고, 곧 이를 반대하는 국가들을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대중은 국가와 같이 언제나 선택의 갈림길에 놓여 신뢰는 유동적으로 변화한다. 이라크 전쟁 이전 당시 국제정치 환경에 대한 분석에 따라 양국은 협력을 선택했고, 미국의 경제적 패권으로 인해 전략적인 상호관계가 이어질 수 있었다.

특히 영국은 유럽의 안보협력체를 형성하는 것보다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더 높았기 때문에⁶³⁾ 국가의 이익을 확실하게 확보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전략에 대한 지지와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

63) Ninth Report of the Foreign Affairs Committee. Session 2002-03.

을 인지하고 있었다. 곧 서로에 대한 의존이 높아질 수 있는 우려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의 위험 감수성을 극복하면서 전략적 선택을 한다.

③ 제도적 신뢰

이라크 전쟁 이전 UN과 같이 양국이 공통되게 가입된 국제기구에 있어 대중의 우호도는 높았고, 국제사회의 미국에 대한 지지도 역시 높았다 [표10 참조]. 2002년 미국은 영국과 함께 다자주의적 협력을 강화시키면서 군사적 개입에 동참하고 글로벌 테러리즘의 확산을 막고자 제도의 구축을 통해 상호 정보 교류 강화 및 약속에 대한 확신을 주었다.

	우호적	비우호적
2002년	77%	18%

표 10. UN에서 미국의 지지도

양국의 대중은 과거 냉전시기부터 이어져 온 지역 협력체로 보스니아, 코소보, 세르비아 등에 감행했던 미국의 군사적 개입에 동참할 수 있는 NATO의 역할을 강조했고, 이어 미국의 대테러전략에 대한 규범과 제도 강화에 동의했다.

반대로 UN에서 미국에 대한 지지도 역시 높았고, 이라크 전쟁 이전 미국 주도의 대테러전략과 자유주의의 세계화에 있어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본다. 이라크 전쟁 이전 2002년 국제사회에서 미국이 얻은 지지도는 77%에 육박했고 전반적으로 영국과 더불어 양국이 공통되게 가입되어있는 다자주의 국제기구에서도

안정적인 협력 관계를 나타냈다.

특히 북대서양조약 5항은 유럽 및 북미국가들 중 하나라도 공격을 받을 경우, NATO에 가입된 회원국 모두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할 것을 명시한다.⁶⁴⁾ 당시 영국은 미국의 군사력에 대한 신뢰도가 높았기 때문에 미국으로부터 안정적인 지원과 투자를 원했다. 이에 기반하여 곧 영국 대중은 글로벌 테러리즘의 확산을 막고자 한다면 공통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확실했고, 이를 보장할 수 있는 공통된 제도 구축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2. 최종 신뢰도 적용

본 논문은 감정적-전략적-제도적으로 구성되는 사전 신뢰에 따라 미국과 영국은 이라크 전쟁이 발발하기 이전까지 비교적 안정적인 신뢰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본다. 서로 상호적으로 형성한 정서적 유대감, 전략적 이익, 그리고 조건적 이해관계가 성립되었고, 이에 기반하여 < 신뢰 > 변수가 작용했다.

이라크 전쟁 이전 양국은 냉전시기부터 이어져왔던 특별한 안보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공통된 정체성과 가치를 공유하고, 서로 협력하면서 얻는 국익과 더불어 서로의 이타적 행위를 억제할 수 있는 제도 마련에 있어서도 우호적이었다.

특히 9.11 테러를 계기로 서방 국가들은 전면적인 정책 변화를 겪게 된다 [표11 참조].⁶⁵⁾ 국가의 이익과 안보를 위협하는 세력들을 확실하게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⁶⁶⁾ 미국은 적극적인 군사적 방어를 추진하면서 동맹국가들 중 특히 영국의 참여 확대를

64) The North Atlantic Treaty, (April 4, 1949).

65) 길병옥, “미국의 한반도전략과 북핵위기 대응책”, 한국동북아학회, 『한국동북아 논총』, 제27 집, (2003. 6), p.13.

66) 김창수, “9·11 테러 이후 미국의 대테러전쟁과 세계전략”, 한국해양전략연구소, 『STRETEGY 21』, Vol. 5 No. 2, (Winter 2002), pp.53-54.

추진했고, 미국 주도의 대외안보정책변화에 있어 영국이 함께할 것을 요구한다.⁶⁷⁾

항목	냉전	탈냉전	테러리즘
안보 위협	소련/중국	국지분쟁	초국가적 테러
이념	공산주의	민족주의	극단주의
국제질서	양극질서	단극질서	단극질서
대응전략	봉쇄전략	참여와 확대	선제공격
대외정책 성향	쌍무주의	다자주의	일방주의

표 11. 미국의 대외정책 변화 정리

결론적으로 이라크 전쟁 이전 미국은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통해 21세기 전쟁은 국력전이고 완벽한 의사소통능력과 작전수행 능력이 병행되어야 승리할 수 있다는 교훈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곧 적에게 꾸준히 압박을 가하고 군사 작전 및 비군사 작전에 있어 동맹국의 전폭적인 지지가 있어야 수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본 연구의 최종 그래프에 적용해보자면, 사전 신뢰가 형성된 상태에서 미국의 실제 의도가 일방주의적이고 단극질서를 추구하고 있다는 점이 전달되면서 영국의 미국에 대한 최종 신뢰도는 평균 이하로 하락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영국은 미국의 강경한 안보 노선을 인지하게 되면서 균형적인 관계가 불안정해 질 수 있다는 인식을 점차 하게 된다. 그러나 영미관계에

67) 김창수(2002), pp. 49.

있어 사전에 서로 가지고 있었던 경험과 기억, 내부적 정체성, 상호 이익, 공통된 제도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형성되어 있었고, 최종 신뢰도는 평균 이하로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2003년 이라크 전쟁에 있어 영국은 군사적 지지를 선택한다 [표1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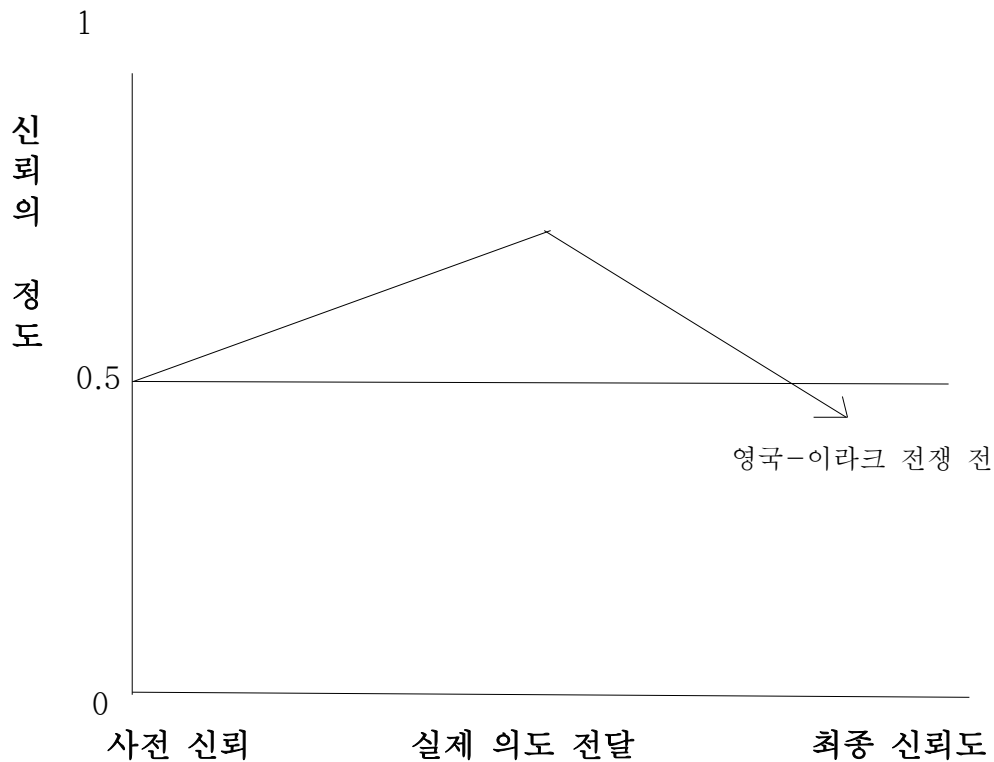


표 12. 사전 신뢰와 상대의 실제 의도 전달 이후 최종 신뢰도의 변화

본 논문은 곧 미국의 예외주의적인 실제 의도에도 불구하고 감정적-전략적-제도적 사전 신뢰가 형성됨으로써 최종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 역시 상대적으로 적은 것이라고 본다. 곧 미국의 팩스 아메리카나적 가치와 단극질서 추구 및 미국 주도의 대테러 전략이라는 위계적인 실제 의도가 전달되면서 최종 신뢰도는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영국은 미국의 안보 전략에 적극적으로 동의하

고 이라크 전쟁에도 군사적 협력을 감행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이를 통해 국가라는 행위자도 결정 과정에 있어 신뢰의 감정성과 합리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가정이 설득력이 가지게 된다.

3. 소결

본 논문은 미국이 일방주의적인 안보 성격을 띠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영국이 이라크 전쟁에 동참한 이유는 미국에 대한 사전 신뢰가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미국에 대한 심리적 지지와 내부적 정체성을 토대로 미국 주도의 이라크 전쟁에 참여하게 된다.

이라크 전쟁 이전 영국은 미국을 주요 동맹국으로 한 NATO 동맹의 유지 확대를 통해 세계질서 유지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유럽 개별국가의 안보 주권을 존중하는 상태로 미국 및 NATO를 통해 자국 안보를 충분히 감당해낼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러한 영국의 입장은 미국과의 연합에 더 우위를 두는 세계 정책을 강화하고자 했음을 보여준다.⁶⁸⁾

영국 블레어 총리는 미국과 연대함으로써 유럽에서 발언권을 강화하고, 동시에 유럽국가의 일원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함으로써 미국에 대한 동맹의 지위를 강화할 수 있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⁶⁹⁾ 영국은 미국이 단독으로 이라크 전쟁을 개시했을 경우 미국으로부터 더 이상 대우를 받지 못하고, 유럽으로부터도 외면당하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수 있음을 인지했다.

68) 김남국, “영국의 이라크전 참여의 동기: 구조와 행위자,” 국제정치논총, 한국국제정치학회, (2007), pp. 259-281.

69) Tony Blair, A Speech to the Associated Press Luncheon, London, (1998).

곧 영국은 미국과 함께 갈 것인가, 혹은 미국을 혼자 가게 놔둘 것인가의 갈림길에서 미국의 입장을 지지한다. 이라크가 유엔사찰단의 조사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을 것이며, 시간을 끌면서 또 다른 최종 결의안의 도출을 기다릴 것이라고 보고 있었다.⁷⁰⁾ 이라크 전쟁의 개시와 함께 미국과의 협력을 선택하면서 영미 간 협력관계의 유지를 원했다. 특히 블레어 총리는 국내적으로 그의 리더십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여러 상황 속에서도 부시 대통령의 말대로 사담 후세인의 대량살상무기 보유를 끝까지 선언했다.⁷¹⁾

결론적으로, 본 논문은 이라크 전쟁 이전 미국과 영국 간 공통된 정체성과 가치, 테러 척결이라는 국가의 목표, 반테러 국제연맹 및 동맹강화, 군사력 강화라는 목표와 미래에 대한 전략, 그리고 상대의 행위에 있어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감정적-전략적-제도적 사전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본다. 이러한 사전 신뢰를 바탕으로 상대의 실제 의도가 상이하다고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변함없는 안보 협력을 유지하게 된다.

70) Hans Blix, *Disarming Iraq*, New York: Pantheon Book, (2004), pp. 128, 197.

71) Tony Blair, *Speech at the Lord Mayor's Banquet*, 15 November (2004), available at:<http://www.number-10.gov.uk/outout/Paee6583.asDy>.

V. 이라크 전쟁 당시 영미관계

본 논문은 이라크 전쟁을 기준으로 영국과 미국 간 신뢰를 기반한 특별한 동맹관계가 무너졌다고 주장한다. <신뢰> 변수는 유동적이기 때문에 실제 이라크 전쟁 때문에 불안해진 양국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2003년 미국의 의도 변화와 영국의 불신이 시작된 계기로 이라크 전쟁 당시 상황을 다시 한번 고찰한다. 이를 위해 미국의 배신에 있어 과연 의도적 배신인지 혹은 전략적 불일치인지 확실하게 정의할 수 없기 때문에, 당시 정부 문건과 신문기사, 오피니언 글 등을 통해 연구된 미국의 실제 의도 변화와 이에 따른 신뢰의 붕괴가 어떻게 영미관계를 변화시켰는지 살펴본다.

이라크 전쟁 이전과 이후 상황은 신뢰가 독립변수가 되어 사전 신뢰의 유무가 국가 간 관계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분석한다. 반면 본 챕터는 이라크 전쟁에 대한 문헌적 연구를 통해 당시 상황을 정리하고, 이러한 전개가 이라크 전쟁 이후 신뢰가 무너진 국가 간 관계를 어떻게 바뀌었는지 연구한다.

1. 미국의 의도 변화

2003년, 미국은 사담 후세인의 독재 지배를 끝내고 민주주의를 확산시키겠다는 명분 하에 대량살상무기를 확보하고 있는 이라크를 공격하겠다고 선언한다.⁷²⁾ 같은 해 3월 20일, 미국 부시 대통령은 미국이 이라크에 군사 작전을 시작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하면서, 이는 미국의 단독적인 계획이 아닌 전 세계적인(concerted) 노력으로 만들어진 전략이라고 개시한다. 이후 4월 9일,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군대는 사담 후세인 정권을 본격적으로

72)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The Iraq War, (2003).

무너뜨리게 되면서, 5월 1일, 미국 주도의 이라크 전쟁 미션은 완수됐고, 부시 대통령은 이라크의 공격을 멈추겠다고 선언했다.⁷³⁾

당시 미국 대중은 미국의 안보 전략에 전반적으로 동의했다.⁷⁴⁾ 특히 미국의 유럽국가들에 대한 지지도가 높았기 때문에, 이라크 전쟁이 발발한다면 자국 주도의 전략에 동참해줄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실제 미국의 이라크 전쟁 발발 의도가 기존 주장했던 바와 상이하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이라크 전쟁에 대한 반전론자들의 비판은 미국의 이라크 침공이 UN이라는 국제사회의 합의구조와 권위를 무시했다고 말한다.

특히 부시 행정부는 UN이라는 국제사회의 합의구조를 무시한 채 이라크를 침공했고, 침공 직전 그는 미국의 안전이 문제가 되는 한 누구의 허락도 받고 말고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며 단독적인 군사 공격을 감행한다.

반면 프랑스와 독일은 다자주의에 근거한 유럽의 공동 외교-안보정책과 군사 운영 능력을 갖는 유럽주의적 분쟁 해결방식을 도입하고자 했다. 결코 미국의 세계전략에 동참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미국 역시 서방 국가들에 대한 사전 테러리즘 공격을 막은 자국의 공격이 무시당했다며 반박했다.

이라크 전쟁이 감행되기 직전인 2003년 3월, 이라크 전쟁 개전을 향해 가는 과정에 있어 프랑스는 무력을 사용하기 위한 조건이 충분히 충족되지 않았다고 끝까지 주장해왔고,⁷⁵⁾ 결국 전쟁을 감수하고서라도 미국의 세계주의적 가치를 주장하고자 했던 부시 행정부의 이라크 전쟁은 실패로 평가됐다.

73) Council on Foreign Relations(2003).

74) Pew Research Center의 자료에 따르면 당시 미국인 83%는 이라크 전쟁을 감행함으로써 포스트 후세인 정권은 더 나아질 수 있다고 생각했다.

75) Hans Blix, *Disarming Iraq*, New York: Pantheon Book, (2004), pp. 128, 197.

2. 영국의 신뢰도 변화

이라크 전쟁이 발발했던 당시 상황에 있어 영국 대중 역시 미국이 테러리즘에 있어 과잉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곧 미국이 주장한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위협인식과 더불어 그 위협이 서방 국가들에게 위기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확산됐고, 이는 결국 공통된 위협 국가에 대한 인식으로 작용하면서 테러리즘을 사전에 확산 방지를 위한 우방국이라고 생각했다.

점차 이라크 전쟁에 대한 결과의 논의가 확산되면서 “미국의 오만이 전 세계적으로 반미감정을 촉발했다”는 의견이 퍼지게 된다.⁷⁶⁾ 국제 여론은 미국과 유럽 간의 관계, 그리고 미국과 이슬람 국가 간에 신뢰는 붕괴했다고 보았고, 특히 미국은 독일과 프랑스를 더불어 전반적인 유럽과의 관계에서 불신을 만들었다. 국가의 힘을 절제하지 못하고 사용하게 될 때 결국 세계는 신뢰를 잃어가고 전쟁이 다가오는 위기와 더불어 전후 처리에 대한 신뢰 상실도 중요한 역할로 작용했다.

이라크 전쟁의 문제는 사담 후세인의 대량살상무기와 그것의 활동에 대해 믿을 만한 정보가 찾기 힘들었다는 것이다. 사실상 정확한 근거가 없이 제시된 위협 인식에 따라 미국의 주도에 기반하여 대량살상무기의 위협성이 안보화 됐다.⁷⁷⁾ 결국 미국 주도의 안보 전략에 대다수 동의했던 영국 대중은 국제기구의 역할을 더욱 강조하게 되었고, UN의 동의 하에 군대를 움직일 수 있다는 설문에서 점차 찬성하는 수가 많아지게 된다 [표13 참조].

76) 매일경제, “이라크전쟁과 국가 간 신뢰,” (2003) available at <https://www.mk.co.kr/news/home/view/2003/04/114700/>.

77) Jamie Gaskarth, “How the Iraq War Led to a Legacy of Public Mistrust in Intelligence,” (2020), The British Academy.

	찬성
영국	64%

표 13. 군대를 사용할 경우 UN의 허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특히 과거 영국에 대한 우호도가 높았던 2002년 상황과 달리 미국에 대한 불신이 일어나게 되면서 반 조차 되지 않는 대중이 미국에 대한 지지도를 보였다. 미국 주도의 이라크 전쟁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판단하면서 미국에 대한 비우호적 감정이 높아지게 된다 [표14 참조].

	우호적	비우호적
2002	75%	12%
2003	48%	24%

표 14. 영국의 미국 군사력에 대한 지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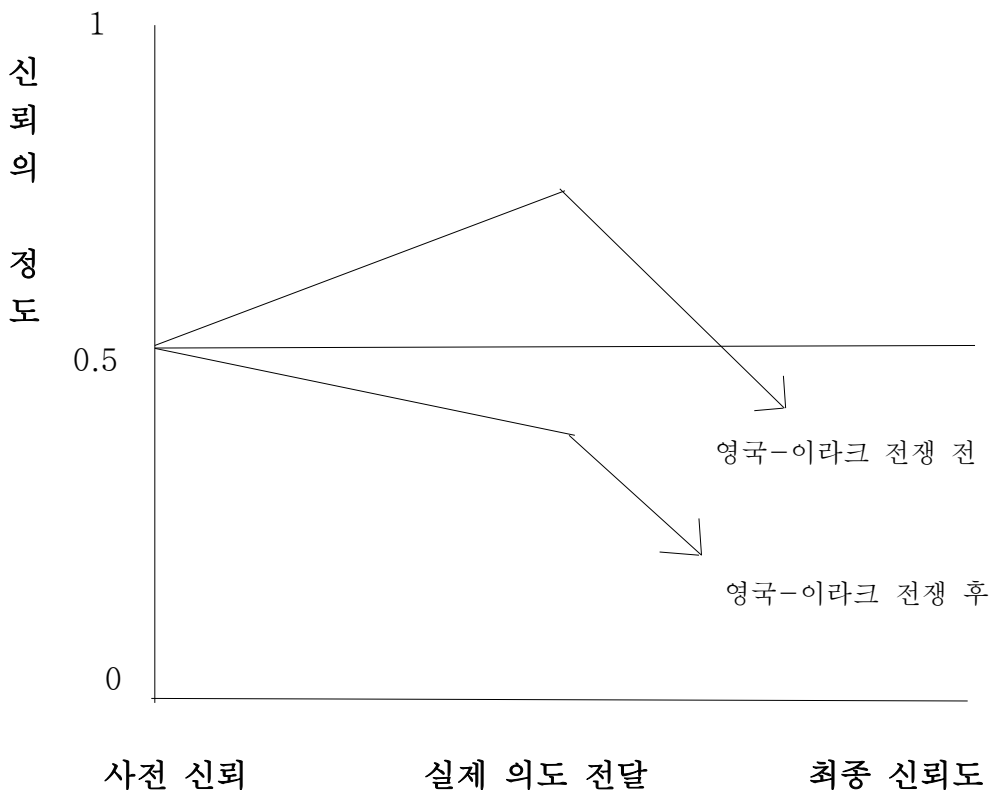
영국은 이라크 전쟁에 있어 적극적으로 군대를 보내고 미국과 협력을 진행했다. 미국 역시 영국에 대한 신뢰도가 높았고 약 90%에 다다른 미국 대중이 영국에 대한 우호도를 나타냈다.⁷⁸⁾ 본 논문이 분석한 결과 이라크 전쟁이 발발했던 그 당시 상황만 해도 영국은 여전히 미국에 대한 특별한 안보적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자 했다. 그러나 이라크 전쟁에 대한 결과가 참혹했고, 미국 주도의 안보전략이 기존 나타냈던 민주주의와 자유주의의 확산

78) Pew Reserch Center, 2002~4년 설문에 참여한 미국 대중의 영국에 대한 우호도를 볼 때, 2002년(83%), 2003년(80%), 2004년(73%)에 육박하는 퍼센트를 보여주었다.

이라고 보기 어려워지면서 미국의 변화된 의도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했다고 본다.

최종적으로 2003년 3월부터 2010년 9월까지 미국은 약 9천억달러의 전비를 지불했지만 군사적으로 완전히 실패했다. 전세계 54개국이 점령에 가담했고 최대 18만 명 이상의 점령군이 주둔했다. 이 밖에도 거의 같은 수에 해당하는 군 지원 인력과 민간 전쟁 기업체 직원들이 점령과 전투를 돕고 있다. 미군은 최대 17만여 명의 군대를 주둔시키기도 했고, 영국은 다음으로 가장 많은 군대를 파견한 나라라는 오명을 얻었다.

3. 최종 신뢰도 적용



이라크 전쟁 상황 당시 영국이 미국의 실제 의도가 상이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협력을 감행했다고 본다면 여전히

최종 신뢰도는 평균보다 하락한 상태임을 보여준다. 최종 그래프에 따라 이라크 전쟁 당시 2003년 양국은 여전히 특별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미국의 실제 의도와 변화하는 태도에 따라 이라크 전쟁 이전에 비해 신뢰도는 하락하며 이라크 전쟁 이후에 더 하락하는 모습을 보인다.

특히 이라크 전쟁 당시 사전 신뢰가 형성되지 못했던 영국의 미국에 대한 최종 신뢰도는 미국의 영국에 대한 최종 신뢰도보다 더 낮다는 것을 보여준다. 미국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영국의 지지를 원했고 자국 주도의 안보 전략에 있어 상대의 협력을 원했던 반면, 영국은 전쟁 초기 미국을 지지했으나, 점차 상대의 상이한 의도를 파악하며 불신이 쌓이게 된다.

전쟁 초기 영국은 미국과 유럽 사이에서 유엔 제2결의안의 도출을 위해 애쓰지만 전쟁을 향해 나가갈수록 유럽주의를 대표하는 프랑스 및 독일과의 입장 차이가 커져간다. 2003년 3월 20일, 이라크 전 개전을 향해 가는 과정에 있어 프랑스는 무력을 사용하기 위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영국은 이라크가 유엔사찰단의 조사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을 것이며 시간을 끌면서도 다른 최종 결의안의 도출을 기다릴 것이라고 보고 있었다.

반면 이라크에 민주주의와 재건을 선사하겠다는 공약은 군사적 목적을 위한 점령 과정에서 확인됐다. 유엔 이라크지원단(UNAMI)은 2006년 7월 보고서를 통해 “이라크 전역에서 민간인에 대한 잔혹한 고문이 일상화되는 등 미국의 이라크 침공이 장기화되면서 인권유린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고 이라크 정부가 법과 질서의 총체적 붕괴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곧 영국의 미국에 대한 신뢰도는 이라크 전쟁 당시 유지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시간이 지나며 하락했고, 미국은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영국의 계속된 지지를 원했다.

4. 소결

2003년 4월 올포위츠 미 국방부 부장관은 프랑스, 독일, 러시아는 이라크 채권을 포기해야 하며, 프랑스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프랑스가 국제사회에서 고립되었다고 말했다. 4월에 들어서면서 전황이 신속히 미국 쪽으로 기울자 프랑스의 지도자들은 이라크 전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전쟁을 감수하고서라도 미국의 세계주의적 가치를 이해하고자 했던 영국의 논리는 다자주의와 외교적 협상을 통해 평화를 달성하려는 유럽 국가들의 접근과 차이를 나타낸다. 주권국가에 대한 일방적 침입은 전 세계에 반미감정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점이 확고했으나 영국은 여러 비판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향해 가는 미국의 접근에 자신의 신념을 강조하면서 동참했다.⁷⁹⁾

점차 국제사회의 이라크 전쟁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미국의 상이한 안보 목표에 따라 영국의 미국에 대한 신뢰가 점차 하락된다. 미국은 자국 중심의 세계 전략에 있어 영국의 안정적인 지지를 원했던 반면, 영국의 최종 신뢰도는 이라크 전쟁 이후 계속 하락되는 모습을 보인다.

이후 2006년 9월 <뉴욕타임스>에 폭로된 미국 ‘국가정보평가(NIE) 보고서’에 따르면 이라크 전으로 테러 위험이 되레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이 평가 보고서는 이라크 전쟁에 참여한 외국 의 이슬람 전사들이 본국으로 돌아가 국내 분쟁을 악화시키거나 급진 이데올로기를 강화시키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자원해 활동하는 테러조직이나 급진 단체가 급증했다고 평가하면서 “테러리즘 확산에 대한 더 많은 직접적 책임이 이라크 전쟁에서 비롯”됐다고 인

79) Le Monde, (2003), available at <http://www.lemonde.fr/recherche,breve/1,13-0,37-800307,0.html>

정했다.

국가정보평가 보고서는 미국 내 전체 16개 정보기관이 정보 분석을 종합한 것으로 미 정보기관들이 특정 국가의 안보 상황과 관련해 만드는 문서 중 가장 권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 국가정보위원회 의장을 지낸 로버트 허친슨 등 전문가들은 “미국의 이라크 침공으로 이라크가 차세대 테러분자들을 끌어들이는 자석과 훈련장이 돼버렸다”고 혹평했다.

이어 2006년 CIA가 사담 후세인과 알카에다의 연관성은 결코 찾아낼 수 없다는 의견에 있어 프랑스와 독일은 크게 반박했고 영국 또한 국제사회의 의견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인다. 부시 대통령은 미 상원 정보위가 미국이 잘못된 정보에 근거해 이라크를 침공했다고 지적하자 "이라크에서 대량살상무기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이라크 전으로 미국이 더 안전하게 됐기 때문에 전쟁은 잘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이라크 전으로 인한 책임을 지겠다는 언급은 없었고 이러한 미국의 행위에 있어 국제사회는 신뢰를 잃어갔다.

프랑스와 독일은 계속해서 이라크에 대한 시찰 시한을 더 연장하고 시찰 규모를 늘림으로서 지금 당장 전쟁을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해왔다. 러시아 역시 입장을 지지하며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새로운 결의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뜻을 밝혔다. 이와 같이 이라크 전쟁 반대론이 감정적인 갈등으로 치닫게 된다. 미국 콜린 파웰 국무장관은 이라크가 무장해제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관한 증거를 제시하는 긴 연설을 함으로서 유엔의 지지를 호소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동맹관계였던 영국의 미국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도는 크게 하락했다.

VI. 이라크 전쟁 이후 영미관계

1. 사전 신뢰도 적용

다음으로 이라크 전쟁 이후 미국과 영국 간 사전 신뢰 형성에 있어 이라크 전쟁 이후 어떻게 변화했는지 살펴본다. 이를 위해 2003~4년 일어난 사건을 중심으로 분석하면서, 앞서 이라크 전쟁 이전과 어떻게 감정적-전략적-제도적으로 다른지 비교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사전 신뢰도를 국가 수준과 대중 수준으로 구분하여 양국 정부 문헌, 의회 보고서 및 2004년 발행된 Pew Research Center 설문조사 결과를 참고한다.

(1) 국가 수준

① 감정적 신뢰

당시 미국이 주장하는 일방주의와 영국이 주장하는 다자주의 격차에 있어 미국은 테러리즘, 대량살상무기, 조직범죄 등은 국경을 넘어 조직화될 수 있고, 극단적 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위협에 있어 적극적 방어 정책이 필요하다는 최선의 공격과 최선의 방어 전략을 내세운다. 곧 미국은 선제 개입에 대한 내용을 지지하는 전통적 우방국가로서 영국의 광범위한 지지를 얻고자 했다.⁸⁰⁾

반면 당시 영국은 이라크 전쟁 이후 테러리즘과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및 지역분쟁을 공통된 안보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었

80) Patrick Fitschen, "Europas strategische Antwort auf die Nationale Sicherheitsstrategie der US," Konrad Adenauer Stiftung e.V (July 2003).

으나, 미국의 안보전략과는 다른 우선순위가 있었다. 영국의 전략 목표는 국제외교 및 안보 협력의 강화를 권고하고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다자주의를 지지하는 국제질서를 창출하고자 했다.⁸¹⁾ 미국과의 공통된 가치를 추구하고 있었던 이라크 전쟁 이전 영국과는 상이한 모습을 띄게 된다.

기본적으로 감정적 신뢰는 기본적으로 행위자들 간 정서적 유대감과 같이 심리학적 변수들로 이루어진다. 당시 미국은 이라크 전쟁 이후 다른 안보 전략을 내세웠고, 이는 상대의 인식을 변화시킨 요인이 되었다. 결국 영국은 프랑스와 독일 주도의 유럽 안보 체제에 동의하게 되었고 내부적 정체성, 민주주의, 세계화 추진 등에 있어 미국과 공통된 세계관을 가지지 못했다.⁸²⁾ 미국은 이라크 침공을 테러세력과 싸우는 정의로운 전쟁이라고 선전하였지만 영국은 이것이 곧 허구임을 알게 됐다.

2015년 영국 이라크 조사위원회 존 칠콧 위원장은 미국이 주도한 2003년 이라크 전쟁에 있어 영국이 참전한 것이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사담 후세인 정권은 두드러진 위협이 아니었고, 또한 후세인 정권을 무장해제 시킬 마지막 수단은 결코 폭력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난 이라크 전쟁 참전은 잘못이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시 토니 블레어 행정부를 비판하면서 전쟁 당시 군사개입에 있어 매우 나쁜 길로 빠진 결과임을 명확하게 명시했다.

이라크에 대한 유엔 사찰단장인 한스 브릭스는 이라크 전쟁 개전 직전인 2003년 2월 14일 유엔 안보리에 사찰 결과를 보고하면서 이라크에 대량살상무기 혹은 그와 관련된 프로그램에 얼

81) Javier Solana, "European Security Strategy: A Secure Europe in a Better World," EU Commission Report (December 2003).

82) 3 John Geffney. "Highly Emotional States: French-US Relations and the Iraq War," *European Security*, 13:3, (2004), pp. 247-272.

마나 남아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지금까지 유엔 사찰단은 그러한 무기를 전혀 찾아내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강하게 미국의 이라크 전쟁의 가치를 비판했고, 당시 유엔 사무총장 코피 아난은 이라크 전쟁은 유엔헌장에 대한 불법행위임을 명백히 규정했다.

이에 따라 사전 신뢰에 기반하여 이라크 전쟁 참전에 동의했던 영국은 더욱 미국 주도의 안보 전략으로 흘러간다는 추세를 인지했다. 결국, 미국과의 양자적인 동맹보다 다자적인 기구의 협력이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면서, 사담 후세인 정권이라는 공통된 위협 인식이 변화한 것으로 보인다. 이라크 전쟁은 결국 무고한 사상자를 내면서 미국 주도의 안보 전략이 결코 옳지 않았음이 드러났고, 영국은 국제기구의 비판을 받으며 과거와 같이 미국에 대한 군사적 의존성을 내비치지 않았다.

다우닝스트리트(Downingstreet) 메모는 영국 노동부, 국방부, 정보 관계자들의 2002년 7월 23일 비밀 회의록이다. 이 회의에서 이들은 이라크 전쟁 명분을 어떻게 축적할지 논의하면서 당시 미국의 비밀 정책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영국 관료들은 미국의 입장에 대해 부시 대통령은 군사행동을 통해 후세인 정권을 제거하길 원했고, 테러와의 연계와 대량살상무기를 근거로 내걸고 싶어했다는 점이 기록됐다. 미 국가안보위원회는 유엔의 절차를 기다리거나 이라크 체제 관련 증거의 공시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 보였다는 것이다.

곧 냉전시기부터 굳건하게 보여주었던 공통된 민주주의 및 자유주의 가치와는 달리, 미국에 대한 감정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후 행위자의 감정과 인식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한다는 요구들이 일어나면서 영국은 미국의 군사적 패권주의와 더불어 반인륜적이었던 이라크 전쟁에 있어 감정적 신뢰가 쌓이지 못했다.

② 전략적 신뢰

냉전시기부터 테러리즘이 발생하기 전까지 소위 10년간의 평화를 통해 미국은 세계 유일의 패권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다. 미국은 자국의 패권국 기반을 공고히 다지기 위해 탈냉전기 본격적으로 동맹국을 확실하게 구축하고 국제정치에서 세력균형자로 자리잡으며 국익을 증진시키고자 했다. 경제, 군사, 안보와 같은 현실적인 경성국가의 모습 및 연성권력에서의 지도력을 행사하고자 한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이라크 전쟁 이후 영국은 미국이 일방적인 군사적 행동을 보이면서 미국의 일방적 대외정책이 국익을 저해할 수도 있다는 사실과 미국과의 군사동맹은 역내 집단 안보뿐만 아니라 역외 지역에서 비효율적일 수 있다고 단정하게 된다.⁸³⁾ 미국은 국제사회의 의견보다 자국이 당면한 이해관계를 더 충실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영국은 근본적으로 비군사적 수단을 더 강조하는 유럽식 외교안보에 있어 생각을 조율하는 계기를 가진다.

2004년 10월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에 제출된 보고서에 따르면 이라크에 대량살상무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무엇보다 부시 행정부의 판단은 오류였음을 밝히고 있다. 본 보고서의 핵심은 군사조치는 최후의 수단이 아니었다는 것이며, 이라크 무기에 대한 판단은 결코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특히 이라크를 악의 축 국가 중 하나로 명시한 부시 대통령의 발언은 곧 미국의 국익을 해치는 국가를 악으로 규정하고 더욱이 미국 편에 서지 않으면 미국의 적으로 간주된다는 단세포적 선악관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21세기에 접어들어 인권, 인도적 개입 등 초국가

83) 이옥연(2016), pp. 82.

국제기구 및 문명론에 있어 새로운 시대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약속한 것에 있어 신뢰를 잃었다. 즉, 미국의 군사적 조치에 있어 외교적 노력을 더 기울여볼 여지가 있었고, 지역의 안정뿐만 아니라 영국과 미국 내 정치, 다른 국가 간 관계에도 심오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 부시 대통령의 악의 축 발언에 있어서도 악을 축출한 권한이 미국에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비판이 이르면서, 이라크 전쟁 이후 미국의 특수 동맹국이었던 영국 역시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얻는 비용이 오히려 국제정치 환경에서 더 클 것이라는 평가를 내리게 된다.

2003년 3월부터 2010년 9월까지 미국은 약 9천 억 달러의 전비를 지출했으나 군사적으로는 완전히 실패했고, 당시 영국은 가장 많은 군대를 지지하고 파견한 나라라는 오명을 얻었다. 이라크에 민주주의와 재건을 지지하겠다는 미국의 공약은 결국 인권유린이며, 이라크 정부가 법과 질서의 총체적 붕괴 위기에 닥치게 됨이 명확해졌다. 2006년 9월 미국 국가정보평가(NIE) 보고서에 따르면 이라크 전쟁 이후 오히려 테러리즘 위협이 확산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 평가 보고서는 이라크 전쟁에 참여했던 외국 이슬람 전사들이 오히려 본국으로 돌아가 국내 분쟁을 악화시키거나 급진 이데올로기를 강화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제기했다. 곧 테러 공격 이후 서방 국가들의 안보를 지켜주겠다는 미국 주도의 안보 전략은 오히려 국가의 이익을 해치게 되는 사건이 되었다.

이와 같이 이라크 전쟁 이후 영국의 미국에 대한 전략적 신뢰는 급격하게 하락함을 알 수 있다. 2006년 CIA가 사담 후세인과 알카에다의 연관성은 결코 찾아낼 수 없다는 의견에 있어 영국을 포함한 유럽 국가들은 전반적으로 동의했고, 이라크 전쟁 반대론이 감정적 갈등으로 치닫자 미국에 대한 책임론이 급증한다.

③ 제도적 신뢰

이라크 전쟁 이후 영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NATO 중심의 집단안보 체제가 아닌 유럽의 독자적인 안보 기구 설립을 동의할 수 밖에 없었다. 영국은 유럽만의 정체성의 강화하고 유럽연합의 공동 외교안보 체제가 기능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수행되기 위한 요소들을 모으기 시작했다.⁸⁴⁾

영국은 양자 및 다자적인 동맹국가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더 중요시하게 생각했고, 이라크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 부서를 만들면서 미국에 대한 의존을 낮추고자 했다.⁸⁵⁾ 곧 영국은 유럽의 핵심 국가들인 프랑스와 독일과 관계 개선에 집중했고, 특히 이라크 전쟁은 국제기구의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감행되었기 때문에 미국이 함께한 NATO의 공동안보전략이 지속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부상한다. 미국 주도의 국제기구임에도 불구하고 NATO는 동맹국가들의 지지와 협조를 끌어내는 데 한계가 있었다 [표15 참조].⁸⁶⁾

2006년 유엔 이라크 지원단은 이라크 전역에서 민간인에 대한 잔혹한 고문이 일상화되는 등 미국의 이라크 침공이 장기화되면서 인권유린이 더욱 심각해지고 이라크 정부가 법과 질서의 총체적 붕괴 위기에 직면해 있음을 지적한다. 반면 미 상원 정보위가 잘못된 정보에 근거해 이라크를 침공했다고 지적하자, 부시 대통령은 이라크에서 대량살상무기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이라크 전으로 미국이 더 안전하게 됐기 때문에 전쟁은 잘한 결정임을 주장했다. 이라크 전쟁의 결과에 책임을 지겠다는 언급은 없었다.

84) 김종범, “아프간전과 이라크전을 통해 살펴본 유럽연합과 미국의 대서양동맹의 변화,” 유럽연구 27(2), (2009), pp. 111-137.

85) Tenth Report of the Foreign Affairs Committee.

86) 로버트 케이컨/홍수원 역, 『미국 VS 유럽 갈등에 관한 보고서』, (서울: 세종연구원, 2004), p. 55.

결국 이라크 전쟁은 엄연히 유엔의 결의안에 승인되지 않고 감행된 군사적 행위이며, 연합국의 피해 상황은 과거 아프가니스탄 전쟁보다 더 심했다. 곧 제도적 신뢰가 형성될 수 있는 국제적 연대가 아닌, 미국 주도의 한정된 국가들이 군사적으로 파견을 감행한 전쟁이었다.

	아프가니스탄 전쟁	이라크 전쟁
전쟁목적	9.11 테러에 대한 대테러전쟁	대량살상무기 제거 및 테러연계 차단
UN 결의안	승인	미승인
참여국	40여개 국가의 국제적 연대	한정된 국가들의 참여
작전 기간	주요 전투 76일	주요 전투 27일
피해 상황	연합국 (203명), 아프간군(18,000명)	연합국(653명), 이라크군(8,570명)

표 15.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이라크 전쟁 비교⁸⁷⁾

2003년 9월 20일, 영국은 미국이 포함된 NATO와 별개로 EU 독자 통합사령부 설치를 주제로 하여 논의를 진행하게 된다. 이는 미국 행정부의 안보 정책에 동조하지 않는 것은 미국에 대한 유럽의 도전으로까지 비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영국은 미국이 포함되지 않은 유럽 만의 독자성에 있어 부정할 수 없었다.

미국은 NATO 정책에 포함된 유럽의 구상만이 미국의 동

87) 한용섭, “이라크 전쟁과 한반도 안보: 이라크 전쟁과 미국의 군사전략의 변화: 평가와 전망,” 『국방연구』,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제 46권 2호 (2003), p. 9.

의를 받을 수 있다고 강경하게 대응하면서, 유럽의 독자적 안보 정책은 결국 초강대국으로서 미국의 지위가 흔들릴 때 실질적으로 가능할 것이라는 비판적인 입장을 내보였다. 미국의 강경한 입장에 있어 양국 간 제도적 신뢰는 점차 무너지는 양상을 보인다.

기본적으로 이라크 전쟁은 미국을 주축으로 연합군의 일부만 참여하게 되면서 대표적으로 전쟁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수단이었던 UN의 결의안도 준비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라크 전쟁은 국가 간 공통된 세계관을 구축하지 못했고 EU 차원의 지지와 협조를 끌어내는 데 한계가 있었다.

양국의 국가안보전략에 있어서는 미국은 유럽국가들이 안보 전략에 있어 다양성을 띠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고, 곧 미국 중심의 일방주의적 단극체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압도적인 힘의 우위, 그리고 압도적인 힘이 유럽 국가들에게 위협적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다.⁸⁸⁾

곧 전통적 우방 국가들인 서유럽 국가들로부터 광범위한 지지를 얻고자 선제 개입에 대한 적극적 공격과 방어 정책이 필요하다는 정책을 내세웠다. 반면 영국은 국제외교 및 안보협력의 강화를 권고하고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다자주의를 지지하는 국제질서를 창출하고자 했다.⁸⁹⁾ 미국에 비해 안보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힘이 없기 때문에 함께 응집력을 갖고 실행 능력을 강화시키는 것을 중요시하게 여겼다.⁹⁰⁾

88) 김영준, '이라크 전쟁에서 나타난 미-유럽의 안보전략 비교: 일방주의와 다자주의의 상호 보완성 고찰,' 『국방연구』,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제 47권 1호, (2004), pp. 3-30.

89) Javier Solana, "European Security Strategy: A Secure Europe in a Better World," EU Commission Report (December 2003).

90) Patrick Fitschen, "Europas strategische Antwort auf die Nationale Sicherheitsstrategie der US," Konrad Adenauer Stiftung e.V (July 2003).

(2) 대중 수준

① 감정적 신뢰

영국 대중은 이라크 전쟁 이후 미국이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에 대해 확실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고, 미국의 군사적 개입은 결코 민주주의 확산이라는 목표만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게 된다. 영국은 미국이 자국의 국가 이익에 입각하여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올라오게 된다 [표 16 참조].

영국은 미국의 이라크 전쟁 당시 의도에 있어 중동 석유, 세계적 지위 강화, 무슬림 정부에 대한 대응, 이스라엘 보호 등으로 고려했고, 정작 미국이 말했던 자유민주주의 가치의 수호와 민주주의 확산에 대한 의도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대중이 인식했던 공통된 가치와 정체성이 흔들리기 시작한다.

	중동 석유 통제	세계적 지위 강화	무슬림 정부에 대한 대응	이스라엘 보호
영국	33%	24%	21%	19%

표 16. 이라크 전쟁 당시 미국 의도에 대한 평가

이라크 전쟁이 발발하면서 곧 미국의 비민주적인 의도가 드러났고, 영국은 2001년 테러리즘이 발생했을 당시 미국에게 느꼈던 내부적 유대감이 사라졌다. 대중은 오히려 이라크 전쟁이 테러리즘을 대응하는 데 있어 위협이 됐다고 인식한다 [표17 참조].

	도움이 됐다	위협이 됐다
미국	62%	28%
영국	36%	50%

표 17. 이라크 전쟁이 테러리즘에 대응하는 데 준 영향력

기존 미국은 자국의 자유주의 문화와 이념에 기초한 민주주의, 인권, 자유 등의 가치로 세계를 운용하고자 했지만, 절차적 민주주의를 이루고 있다고 하더라도, 인도주의적 개입 외교는 일방주의적인 모습을 보였고, 영국 대중은 세계질서 자체의 근본적인 한계와 범세계주의적인 민주주의론에 있어 미국의 역할을 의심하게 된다.

② 전략적 신뢰

영국 대중의 미국의 군사적 패권에 대한 인식이 변화한다. 미국의 안보 정책과 협력함으로써 얻는 이익과 비용을 계산하게 되면서 미국 패권의 하락으로 인해 변화한 환경에 대해 분석한다 [표18 참조]. 과거 이라크 전쟁 이전 미국의 군사적 패권에 있어 7~80%의 신호도를 장악했던 영국 대중의 인식이 급격히 하락한다. 곧 이라크 전쟁 이후 미국의 군사력에 대한 의존도 역시 하락한다.

	약해졌다	강해졌다
영국	32%	46%

표 18. 이라크 전쟁 이후 미국 군사력에 대한 인식

대중의 인식은 미국의 안보 능력 저하를 조금씩 인지하게 되면서 상대의 군사력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게 된다. 결국 영국은 미국의 군사적 영향력을 의심하게 됐고, UN과 같은 다자주의적 국제기구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다. 미국이 제공하는 국가안보의 영향력에 있어 확신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미국과의 협력보다 국제기구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상승한 것이다 [표19 참조].

	미국	UN
미국	42%	46%
영국	10%	82%

표 19. 이라크 공격 이후 누가 더 도움을 많이 줄 수 있는가?

이라크 전쟁 이전까지 미국과 협력하면서 같은 민주주의 이념으로 공고한 동맹을 유지하는 것이 국가 안보에 중요한 전략 이었으나, 이라크 전쟁으로 만들어진 불신이 결국 위험 감수성을 높였고, 전략적 협력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왔다고 본다. 영국은 오히려 다자주의 기구인 EU가 미국만큼 강해진다면 세계질서가 더욱 안정될 것이라고 인식하게 되면서, 다자주의적 안보 전략 노선으로 변화한다 [표20 참조].

	도움이 됐다	위협이 됐다
미국	33%	50%
영국	50%	82%

표 20. 만약 EU가 미국만큼 강해진다면 더 안전할 것인가?

③ 제도적 신뢰

이라크 전쟁 시행에 있어 미국의 의도에 대한 불신이 일어나자 영국은 NATO를 대안할 수 있는 독자적인 다자주의 안보 기구를 설립하고자 한다 [표21 참조]. 미국 역시 미국 주도의 대테러전략에 있어 영국을 묶어둘 수 있는 방도가 점차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

	독립성 추구	협력관계 유지
영국	56%	40%

표 21. 미국 외 독립성에 대한 인식

영국은 무력 사용에 있어 미국과 세계관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기본적으로 UN의 허가를 우선적으로 고려했고 미국은 독자적인 군사 사용을 계속 감행했다. 특히 영국 대중은 UN에서 체결된 결의안 1441을 통해 군사적인 전쟁이 아닌 외교적 수단으로 이라크를 IAEA 시찰 동의 및 대량살상무기의 비확산을 지지했다 [표22 참조].⁹¹⁾

	우호적	비우호적
영국	74%	18%

표 22. UN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차이

91)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441(2002).

이라크 전쟁 이후 유럽국가들의 미국의 리더십과 동맹 수행 능력에 대한 지지도가 상당히 줄어들었다 [표23 참조]. 과거 미국 주도의 테러와의 전쟁을 지지했으나, 미국의 예외주의적인 군사 패권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하면서 협력하기를 거부하게 되는 증상으로 본다.

이것이 결국 영국이 유럽의 독자적인 안보 노선을 택하도록 만들었고, 미국은 자국의 전략과 맞지 않는 영국의 독자적인 행보에 있어 반대하게 된다. 미국은 점차 영국의 독립성을 인지하기 시작했고,⁹²⁾ 양국 간 군사 협력에 있어 가치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인식하게 된다.

	높아졌다	낮아졌다	똑같다	모르겠다
미국	58%	29%	6%	7%
영국	24%	58%	12%	6%
프랑스	14%	78%	6%	2%
독일	10%	82%	5%	3%
러시아	8%	63%	21%	8%
터키	8%	74%	11%	7%
파키스탄	5%	64%	7%	24%
요르단	4%	50%	38%	8%
모로코	12%	72%	7%	9%

표 23. 이라크 전쟁 이후 미국에 대한 국가별 신뢰도 정리⁹³⁾

92) Committee on Armed Services, "An Enlarged NATO: Mending Fences and Moving Forward on Iraq," (April 29, 2003), pp. 13.

93) The Pew Research Center for the People and the Press, (2004).

특히 이라크 전쟁 이후 EU 국가들이 느끼는 국가별 위협의 정도에 있어 미국은 자국이 주장했던 악의 축 국가들과 같은 정도에 올라선다 [표24 참조]. 미국은 이란, 이라크, 북한에 대해 느끼는 위협 인식도와 동일한 위협 국가로 인식됐다.

영국 대중은 NATO를 대안할 수 있는 독자적인 다자 안보 기구를 설립하는 데 보다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확실하게 과거 미국 주도의 안보 전략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방도가 점차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한다. 영국을 포함한 유럽국가들은 미국 주도의 안보 전략에 동참하지 않고자 했고, 이는 결국 상대국에 대한 위협 인식도를 변화시키는 계기가 된다.

	위협 인식도
미국	53%
이란	53%
이라크	52%
북한	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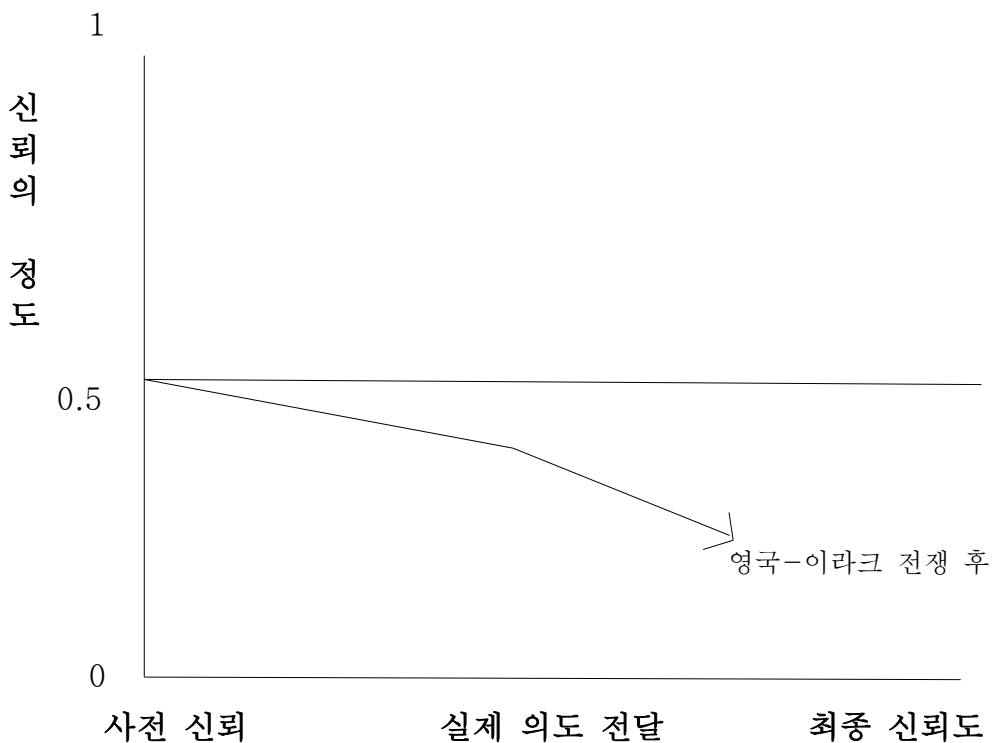
표 24. EU가 느끼는 국가별 위협의 정도

2. 최종 신뢰도 적용

본 논문을 통해 이라크 전쟁 이후 양국의 안보 전략에 있어 분명한 차이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테러 공격은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국가 간 자유민주주의, 서구사회의 보편적 가치, 대량살상무기의 비확산과 평화 추구 등과 같이 상호적인 정서적 유대감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이를 최종 신뢰도 그래프에 적용하여 본다면, 사전 신뢰가 형성되지 못했던 영국의 최종 신뢰도는 이전보다 더 크게 하락한다. 미국의 실제 의도 전달 이후, 사전 신뢰가 형성되지 못했던 영국의 미국에 대한 신뢰도가 더 큰 영향을 받은 것이고, 사전 신뢰가 형성되지 못했던 이전 시기보다 평균 이하로 크게 하락한 것을 알 수 있다.

2004년 양국관계는 확연한 차이를 보였고, 견고했던 관계가 주변국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마찰을 이어갔다. 이는 전통적 동맹국도 서로 불신할 수 있다는 양상을 전개시키면서, 결과적으로 미국은 자국 주도의 NATO를 강화하려고 했던 반면, 영국은 유럽만의 독립적인 국제기구 형성에 더욱 집중한 것으로 보인다.



사전 신뢰가 형성되지 못했던 이라크 전쟁 이후 양국 관계에서 불신이라는 감정이 더 커지게 됐고, 이는 사전 신뢰가 형성되었던 이라크 전쟁 이전 양국 관계를 변화시키는 계기가 된다. 영국은 실제 의도와 다른 모습을 보였던 미국의 안보 전략에도 결국 협력했던 이라크 전쟁 이전 모습과 달리 미국 주도의 독립적인 정책에 있어 반감을 표시하게 된다.

점차 미국의 안보지지 명분 하락과 경제 및 군사 분야에서 경쟁 상대로 부상하는 유럽의 존재는 서로에 대한 상호 불신을 만들었고, 결과적으로 사전 신뢰가 형성되지 못한 상태에서 상대의 의도 불신은 최종 신뢰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3. 소결

미국은 명시적으로 체제변화를 원했으나, 영국은 유엔 결의안에 따른 이라크의 무장해제를 지지했다. 이러한 세계관의 차이는 블레어 총리에게 국가 안보적 위협을 주었고, 이라크 참전으로 영국 내 테러 위협이 오히려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된다. 결국 미국과의 지속적인 협력이 국익을 위협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조언을 받게 된다.

본 논문은 이라크 전쟁 이후 영국의 미국에 대한 신뢰도가 급격히 하락한 원인으로 사전 신뢰가 제대로 형성되지 못함으로 발생한 갈등상태라고 본다. 양국이 공통되게 가지고 있었던 가치가 상이했고, 서로 협력하면서 얻는 이익보다 비용이 더 클 수도 있다는 국가 안보적 불안감, 그리고 그 과정에서 둘러싼 국가 간 이해관계 대립에 있어 전쟁의 본질적 속성이 더 제대로 설명되어야 했다.

영국에서 이라크 전쟁이 진행 중이었던 2003년 4월, 전쟁

에 대한 지지 여론은 63%였지만, 9월에는 38%로 하락한다. 대중은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다시 생각해야 한다는 의견을 높였고⁹⁴⁾, 미국적 국제분쟁 해결방식에 대해 불신이 커지게 된다. 결국 전쟁을 반대하는 상징적인 반 블레어 하원 회의가 열리게 되면서 영국 정부는 미국과의 협력을 다시 한번 고찰하게 된다.

이라크 전쟁은 미국의 신보수주의자들 외에 아무도 이유를 찾지 못한 전쟁이 되었다. 미국 부시 대통령이 내건 명분들,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 개발 의혹과 알카에다 연계설은 끝내 거짓으로 드러났다. 이라크 전쟁 직전 미 국무장관이었던 콜린 파월이 유엔 회의장에서 직접 브리핑하면서 이라크가 대량살상무기를 숨기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UN 안보리는 미국, 영국과 나머지 나라 간의 싸움장이 되면서 미국의 위상은 급격히 떨어지게 된다.

미국적 국제분쟁 해결방식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면서 이미 10만 명이 넘어가는 이라크 민간인 사망자 수와 영국군 및 미군의 늘어나는 사상자 수를 고려하면 전쟁의 양상이 점차 큰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게 된다. 결국 이라크 전쟁을 반대하는 상징적인 반 블레어 하원회의를 연기하자고 했던 제안은 부결된다.⁹⁵⁾

이러한 상황에서 영국은 미국식 일방주의가 위협적임을 인지하고 자국이 미국과 유럽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이 하락하게 된다. 미국은 자국 주도의 이라크 전쟁에 대한 정당성에 있어 신뢰를 잃고 국제적인 여론의 지지를 받는 데 성공하지 못했다. 최종 신뢰도 그래프에 따르면 이라크 전쟁 이후 영국의 미국에 대한 신뢰도는 가장 크게 하락했고, 이러한 와중에도

94) Guardians, ICM 여론조사 보도, (2003),

<http://www.guardians.co.uk/guardianpolitics/story/0,,1047817,00.html>.

95) WMD did post a Threat, Guardians, July 21, 2004, available at

<http://www.guardians.co.uk/comment/story/0,,1265522,00.html>.

부시 행정부는 대량살상무기의 위험성을 강조하면서 침공을 정당화하기 시작했다.

본 논문은 이라크 전쟁 참여 당시와 다른 모습을 보인 영국의 입장은 상대에 대한 신뢰 하락이며, 신뢰는 단지 정서적이고 심리적인 믿음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 상당히 전략적이고 제도적인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음을 밝힌다.

VII. 가설 검증 및 연구의 함의

본 논문은 국제정치 연구에서 감정의 개념이 간과되어 왔다는 비판으로 시작한다. 합리성과 이성에 기반한 이론으로 시작된 국제정치 패러다임에 있어 그동안 감정 변수는 크게 조명받지 못했다. 기존 이론은 행위자를 이성적이고 합리주의적이라고 전제하고 시작하기 때문에, 감정은 합리적 지성의 방해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국제정치 현실을 보았을 때 행위자는 언제나 이성적이었다고 볼 수 없다. 국가 간 맺는 규범, 조약, 제도의 기반 역시 감정적 요소를 포함하고 국가도 상황에 따라 인식하고 행동하는 행위자이다.

그렇다면 이성적이지 않은 행위자의 범주는 이론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이어진다. 행위자에게 감정이란 언어, 습관, 기억 그리고 사회, 문화적인 환경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행위자는 순전히 느끼고 인식하는 감정성과 동시에 자신이 처한 상황, 미래에 대한 기대, 전략적인 이익과 비용을 등을 계산하여 형성되는 합리성도 가지고 있다. 전쟁 혹은 테러와 같은 국제정치 현상에 대해 직접 보고 경험하고 그에 수반한 감정을 인지하면서 자신이 처한 상황을 대처하고자 한다. 즉, 행위자는 이성과 감성을 모두 가지고 있으며, 실증적인 이론적 범주화에 한계가 있으나 이러한 문제 인식을 통해 기존 감정이라는 변수를 간과해왔던 국제정치학에 어떤 함의를 줄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본 논문은 감정 중에서도 신뢰의 다차원적인 개념을 살펴보고 국제정치학의 이론적 및 방법론적 측면에서 어떻게 검토할 수 있는지 논한다. 새로운 분석적 시각을 통해 상대와 상호작용으로 맺어지는 관계적 변수인 신뢰가 국가 간 관계를 유지하고 이해

하는데 있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주목한다.

곧 이라크 전쟁 시점을 기준으로 전후 미국과 영국 간의 사전 신뢰도와 상대의 실제 의도 이후 최종 신뢰도의 변화까지 살펴봤다. 행위자들 간 감정적-전략적-제도적으로 형성된 사전 신뢰를 통해 상대의 실제 의도를 파악하고, 그에 기반하여 국가들은 상대에 대한 최종 인식과 자신의 전략적 선택을 변화시킨다. 신뢰도는 자신이 가진 의도, 자신이 상대를 향한 인식, 상대가 가진 의도, 상대가 자신을 향한 인식에 따라 변화하는 변수이다. 곧 동맹 국가라고 해서 신뢰를 얻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한다.

본 논문은 이라크 전쟁 이전, 당시, 그리고 이후 양국 관계를 살펴보면서 상대국(미국)의 실제 의도가 기존에 상이할 경우 신뢰의 유무가 최종 신뢰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았다.

H1: 사전 신뢰가 형성되었던 이라크 전쟁 이전 영국의 미국에 대한 최종 신뢰도는 상대의 실제 의도 전달 이후 평균 이하로 하락했으나, 테러와의 전쟁과 같은 단기적 협력은 가능하다.

이라크 전쟁 이전 영국은 미국에 대한 사전 신뢰가 형성됨에 따라 미국의 일방주의적인 안보 노선이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테러와의 전쟁에 참여했다. 기존 동맹이론은 공통된 정체성, 가치, 의도 등이 형성된다면 협력할 것이라고 주장하자면, 본 논문은 사전 신뢰에 기반하여 상대국의 행동을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에 따라 협력 여부도 변화될 수 있다고 증명한다.

H1-1: 사전 신뢰가 형성되지 못했던 이라크 전쟁 이후 영국의 미국에 대한 최종 신뢰도는 상대의 실제 의도 전달 이후 더 크게 하

락했고, 신뢰 형성 시기 이루었던 단기적 협력에도 더 이상 참여하지 않는다.

이라크 전쟁 이후 영국은 미국의 군사 전략에 있어 불신했고, 과거부터 이어져 왔던 비교적 안정적인 사전 신뢰 역시 형성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영국은 협력해왔던 미국 주도의 테러와의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다. 영국 이라크 조사 위원회는 공개적으로 미국 정부의 실책을 비판했고, 영국은 미국과의 협력을 더 이상 지지하지 않았다.

H2: 이라크 전쟁 당시 사전 신뢰가 형성되지 못했던 영국의 미국에 대한 최종 신뢰도는 미국의 영국에 대한 최종 신뢰도 보다 더 낮다.

2003년 이라크 전쟁이 발발하면서 영국은 사전 신뢰에 입각하여 미국의 군사적 감행을 지지했다. 가장 많은 군대를 파견한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영국은 비교적 안정적인 동맹관계를 유지하고자 했으나 이라크 전쟁을 통해 미국의 군사적 패권주의가 드러나면서 영국의 미국에 대한 사전 신뢰도는 급격히 하락한다.

본 연구는 상대국의 의도가 실제와 상이할 경우를 기본적으로 전제하고 있다. 이라크 전쟁 이전, 영국은 민주주의 확산, 서방국가 가치 보호 등을 미국의 국제안보전략이라고 생각해왔던 반면 미국은 미국의 예외주의를 강조하고 있었다. 이라크 전쟁 이전, 영국은 미국에 대한 사전 신뢰가 형성됨에 따라 이후 미국의 실제 의도가 자국이 생각했던 의도와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협력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라크 전쟁 이후에도 상대의 실제 의도가 상이함이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당시 영국은 미국에 대한 의도에 있어 중동 석유, 무슬림 정부에 대한 대응, 이스라엘 보호 등과 같이 미국의 의도가 세계적 지위 강화일 수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과 동시에 여러 의도가 있을 수 있다고 파악했다. 이후 미국의 패권주의적이고 단독적인 모습이 나타나자, 사전 신뢰가 형성되지 못했던 이라크 전쟁 이후 영국은 더 이상 미국의 대테러전략에 협력하지 않는다.

기존 국제정치 패러다임은 국가들의 관계에 있어 <신뢰> 변수를 그저 감정적인 요소로 고려해왔다. 감성은 이성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이해하면서 이성을 방해하는 존재, 혹은 이성을 지원하는 존재로서의 감정으로만 인식되었다. 그러나 국가도 무의식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고, 외부 집단에 대한 부정적 감정, 내부 집단과 동일한 감정, 집단의 공통 이익과 선호도 등은 감정의 사회적 정체성을 형성하기도 한다. 곧 사회 관습, 기억과 경험과 같이 무의식적인 요소도 국제정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본 논문은 미국과 영국의 변화하는 신뢰도를 분석했다. 전통적인 동맹관계인 국가 사이에 언제나 신뢰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었다. 신뢰는 유형과 정도에 따라 변화하는 유동적인 변수로서 과거부터 굳건했던 동맹관계인 국가 사이에도 신뢰와 불신이 반복된다.

신뢰연구에 있어 남북신뢰, 미중신뢰, 동아시아 신뢰 등 국제정치학에서 신뢰라는 변수를 점차 중요한 요소로 인지하기 시작했으나 관련 연구는 적은 현실이다. 그러나 합리적이고 이기적인 행위자로 전제하는 기존 국제정치 패러다임과 서구 중심주의를 강조한 이론들에 있어 과거 역사적 경험과 감정, 동시에 합리성과

당시 제도로 만들어진 신뢰에도 주목할 수 있는 탈식민적이고 다원화된 국제정치학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기존 신뢰연구는 심리학에서 시작되어 행위자의 주관적인 감정으로 치부되어 왔으나, 본 연구를 통해 개인의 감정 수준을 넘어 사회, 그리고 국가라는 분석 단위에 있어서도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는 점에 함의를 가진다.

사회과학에서 논하는 행위자의 본성은 이성과 합리성을 기반으로 한다. 국가와 사회에 자리잡은 합리주의를 인간 본성에 내재된 것이라고 보지만, 본 논문은 감정 역시도 인간과 사회의 정체성을 구축하는데 필수적이며, 인간 개체와 공동체를 연결하고, 나아가 국가를 형성하는 사회적 요소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

감정에 있어 신뢰는 심리학으로부터 인간의 태도와 행동, 집단의 감정, 구성원의 정체성 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인식되면서 1990년대에 들어 행정학, 경영학, 정치학, 경제학에도 점차 중요한 변수로 떠올랐다. 특히 국제정치학은 국가 간 관계성을 중시하는 학문으로써 신뢰연구에 있어 큰 함의를 가질 수 있다. 국가들은 자신의 이익과 힘의 확대만 강조하는 이기성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론 공동체 및 다자주의 기구의 확대, 환경, 인권, 젠더 등과 같은 세계 공통적인 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 비용을 감수하면서 협력하고자 하는 윤리성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신뢰연구를 통해 합리적인 국가와 더불어 이타적이고 감정적인 국가라는 새로운 분석을 시도할 수 있다.

신뢰연구를 통해 성찰적이고 규범적으로 사회 현상을 분석해볼 수 있다는 함의를 가지는 동시에 한계점이 존재한다. 신뢰의 개념과 유형화는 상당히 다차원적이기 때문에 하나의 이론으로 발전하기 위한 간결성이 부족하다. 명확한 개념의 부재와 더불어 경험적 자료 축적이 부족한 현실이다. 여전히 신뢰를 감정으로만 정

의하고 있는 심리적 연구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실증적이고 과학적인 연구 방법에 기반한 국제정치 연구에 있어 하나의 주요 변수로 발전시키기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이후 감정과 신뢰 담론이 더욱 다양한 현대 국제정치 현상을 분석하는 데 실질적인 틀이 되려면 역사적 사례들을 시계열로 정리하여 적용하는 연구, 단순히 개인의 감정을 넘어 다차원적이고 복합적인 신뢰를 개념화한 연구, 국제정치학에서 말하는 인간의 본성에 있어 신뢰라는 변수를 이해하는 통합적인 연구 등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국문 단행본 및 논문>

곽정연. 2019.“독일에서의 이라크 전쟁 관련 미국 담론.” 『독일어 문학』 84. pp. 35-56.

길병옥. 2003.“미국의 한반도전략과 북핵위기 대응책.” 한국동북아 학회. 『한국동북아 논총』 27집.

김강녕. 2004.“미국의 세계전략과 테러와의 전쟁.” 육군본부 군사 연구 제 120집.

김영준. 2004. “이라크 전쟁에서 나타난 미-유럽의 안보전략 비교:일방주의와 다자주의의 상호 보완성 고찰”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국방연구』 제 47권 1호. pp. 3-30.

김종범. 2009.“아프간전과 이라크전을 통해 살펴본 유럽연합과 미국의 대서양동맹의 변화.” 유럽연구 27(2). pp. 111-137.

김창수. 2002. “9·11 테러 이후 미국의 대테러전쟁과 세계전략.” 한국해양전략연구소. 『STRETEGY 21』 Vol. 5 No. 2. pp.53-54.

로버트 케이컨/홍수원 역. 2004. 『미국 VS 유럽 갈등에 관한 보고서』 . 서울: 세종연구원.

마상윤. 2005.“미국 신보수주의의 역사적 배경: 탈냉전에서 이라크 전쟁까지.” 『네오콘 프로젝트: 미국 신보수주의의 이념과 실천』. 서울: 사회평론.

———. 2009. 21세기 미국의 동맹질서 구상: 역사를 통한 조망.” EAI 국가안보패널 보고서 No. 37.

막스 셸러, 2006. 『동감의 본질과 형태들』 아카넷. 대우고전총서 18.

민병원. 2018. “국제정치와 인간본성—이성, 감정, 그리고 열정.”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민희. 2018. “감정으로 정치보기.”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소병일. 2018. “공감과 공동체적 삶.”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은용수, 유채영. 2017.“국제정치학(IR)의 감정연구: 비판적 검토와 이론적제언.” 국제정치논총 제57집 제3호. pp. 51-86.

원숙연. 2001.“신뢰의 개념적, 경험적 다차원성: 신뢰연구에 갖는 함의.” 『한국정책학회보』 제10권 제3호.

이삼성. 2001. 『세계와 미국』 서울:한길사.

이수형. 2010.“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지구적 동반자관계.”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국방연구』 제 53권 제1호. pp.

1-21.

이옥연. 2016. “미국-유럽 관계의 변화와 지속에 나타나는 양가성.” 서울대학교 미국학 연구소. Vol, 39, No. 1. pp. 73-103.

이유진. 2004. “9·11 테러 이후 미국의 대외정책과 미-유엔관계 변화.” 동아시아연구 9권 9호. pp. 39-62.

이혜정 2015. “자제 대 패권: 탈냉전기 미국 대전략의 이해.”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Vol 24, No. 3. pp. 171-197.

장훈. 2005. 미국 정당정치의 변동과 신보수주의. <네오콘 프로젝트>. 서울: 사회평론.

최수경. 2004. “미국과 유럽연합의 안보협력과 갈등.” 사회과학연구 15. pp. 215-237.

하홍규 2018. “감정, 삶, 사회- 감정 사회학 이론들.”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한용섭. 2003. “이라크 전쟁과 한반도 안보: 이라크 전쟁과 미국의 군사전략의 변화: 평가와 전망.”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국방연구』 제 46권 2호.

<영문 단행본 및 논문>

Ariffin, Yohan, Coicaud, Jean-Marc, and Popovski, Vesselin eds., 2006. *Emotions in International Politics: Beyond Mainstream International Relations*. Cambridge University Press.

Bantock, G. H. 1967. *Education, Culture and the Emotions*. Faber & Faber. pp. 65-86.

Barbalet, J. M. 2002. *Emotions and Sociology*. Oxford Blackwell. pp. 1-3.

Bennett, Andrew and Checkel, Jeffrey. 2014. *Process Tracing*.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7-9.

Blix, Hans. *Disarming Iraq*. 2004. New York: Pantheon Book. pp. 128-197.

Booth and Wheeler. 2008. *The Security Dilemma: Fear, Cooperation and Trust in World Politics*. Houndmills: Palgrave Macmillan.

Buzan, Barry and Hansen, Lene. 2009. *The Evolution of International Security Studi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asanova, Jean–Claude. 2003. “De Charles de Gaulle a Jacques Chirac,” *Le Monde*.
- Coleman, James S. 1990. *Foundations of Social Theor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ollier, David. 2011. "Understanding Process Tracing." *PS Political Science and Politics*. Vol. 44, No. 4. pp. 824.
- Denzin, Norman. 1984. *On Understanding Emotion*. New Brunswick Transaction Publishers.
- Deutsch, Morton. 1960. “The Effect of Motivation Orientation upon Threat and Suspicion.” *Human Relations*. pp. 123–139.
- Ekman, P. 1992. An Argument for Basic Emotions. *Cognition and Emotion*. pp. 169–200.
- Fineman, Stephen. 1999. *Emotion in Organizations*. London Sage Publications.
- Fitschen, Patrick. 2003. “Europas strategische Antwort auf die Nationale Sicherheitsstrategie der US.” *Konrad Adenauer Stiftung e.V.*

Gaskarth, Jamie. "How the Iraq War Led to a Legacy of Public Mistrust in Intelligence." 2020. *The British Academy*.

George, Alexander and Bennett, Andrew 2005. *Case Studies and Theory Development in the Social Sciences*. MIT Press.

Hardin, Russell. 1993. "The Street-level Epistemology of Trust." *Politics and Society*. pp. 505-529.

——— 1998. "Trust in Government." *Trust and Governance*.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Haukkala, Hiski, Wetering, Carina van de, Vuorelma, Johanna, 2018. *Trust in International Relations: Rationalist, Constructivist, and Psychological Approaches*. Routledge.

Hochschild, Russell. 1979. "Emotion Work, Feeling Rules, and Social Structur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85(3). pp. 551-575.

Hume, David. 1978. *A Treaties of Human Nature*. Oxford: Clarendon Press.

Jones, G. R. and George, J.M. 1998. "The Experience and

Evolution of Trust: Implications for Cooperation and Teamwork.”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3. pp. 531–546.

Jones, Seth. 2007. *The Rise of European Security Coopera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54.

Kuhlman, Marshello. 1976. “Individual Differences in Game Motivation as Moderators of Preprogrammed Strategy Effects in Prisoner’s Dilemma.”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pp. 922–931.

Kydd, Andrew. 1997. “Game Theory and the Spiral Model.” *World Politics*. Vol. 49, No. 3.

——— 2005. *Trust and Mistrust in International Relations*. Princeton University Press.

Luhmann, Niklas. 1988. “Trust: Making and Breaking Cooperative Relations.” *Familiarity, Confidence, Trust: Problems and Alternatives*. New York. pp. 94–107.

Lundestad, Geir. 1986. “Empire by Invitation? The United States and Western Europe, 1945–1952.” *Journal of Peace Research* 23.3. pp. 263–77.

- McClintock, C. G. 1972. "Social Motivation: A Set of Hypotheses." *Behavioral Science* 17(5). pp. 438-454.
- Mead, George Herbert. 1895. "A Theory of Emotions from the Physiological Standpoint." *Psychological Review* 2(2). pp. 162-164.
- Mead, Walter Russell. 2004. "America's Sticky Power." *Foreign Policy* 141. pp. 46-53.
- Pells, Richard. 1997. *Not Like Us: How Europeans Have Loved, Hated, and Transformed American Culture since WWII*. London: Basic Books.
- Putnam, Robert. 1993. *Making Democracy Works: Civil Traditions in Modern Italy*. Princeton University Press.
- Ross, Andrew. 2006. "Coming in from the Cold: Constructivism and Emotions."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12(2). pp. 197-222.
- Rousseau, D. M. 1998. "Not So Different After All: A Cross-discipline View of Trust"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pp. 393-404.

Solana, Javier. 2003. "European Security Strategy: A Secure Europe in a Better World." *EU Commission Report*.

Uslander, Eric. 2002. *The Moral Foundations of Trust*. Cambridge University Press.

Wolfers, Arnold. 1942. "Anglo-American Post-War Cooperation and the Interests of Europe." *American Politics Science Review* 36.4. pp. 656-66.

Wright, Stephen. 2010. *Trust and Trustworthiness*. pp. 615-627.

<정부 자료>

Committee on Foreign Relations. 2003. *Diplomacy and the War on Terrorism*.

————— 2003. *Iraq: Reconstruction*.

————— 2003. *Iraq Stabilization and Reconstruction: U.S. Policy and Plans*.

————— 2003. *The Iraq War*.

Committee on Armed Services. 2002. The Future of NATO.

2003. The Future of the NATO.

2003. An Enlarged NATO: Mending Fences and
Moving Forward on Iraq.

The Heads of States and Government participating in the
Meeting of the North Atlantic Council in
Prague. 2002. "Prague Summit Declaration."
Czech Republic.

The North Atlantic Treaty. April 4, 1949.

The White House. September 2002. *The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U.S. DoD. 2002. "Fighting the War on Terrorism." Annual
Report to the President and the Congress.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441. 2002.

<언론 기사>

Donald H. Rumsfeld. "A New Kind of War," *The New York
Times*, September 27, 2001.

“Europe and Uncle Sam: Will Europeans Try to Help the Americans in Iraq— or Gloat over Their Discomfiture?” The Economist, 2003. 9. 6.

The Guardians. ICM 여론조사 보도. 2003.

————— “Weapons of Mass Destruction Did Post a Threat.”
July 21, 2004.

매일경제. “이라크 전쟁과 국가 간 신뢰.” 2003.

하영선. “미 행정책 변화 주시해야.” 조선일보. 2003년 3월 B일자
6면.

<연구 보고서>

Kamp, Karl-Heinz. 2003. “Germany and the United States—Anatomy of a Crisis.” KAS Report.

The Pew Research Center. 2003. Views of a Changing World.

————— 2004. Pew Global Attitudes Project: Nine Nation Survey.

————— 2004. A Year After Iraq War.

국방정보본부 역. 2002. 『2002년 미 국방연례보고서』 .

Abstract

Trust and International Relations :

A Study on the U.S–U.K Relations before and after the
2003 Iraq War

Heesu Lee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and International Relations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research analyzes the U.S.–U.K relationships before and after the 2003 Iraq War by applying <Trust and Mistrust> in international relations. Two countries maintained a special alliance from the WWII and they faced war together, perceived a same enemy, and shared the common ideology.

With the September 11 terrorist attack, the United States saw it as such a huge threat to the Western value, and this approach served as an opportunity for the outbreak of the Invasion of Iraq in 2003. The United States expected Britain to fundamentally support the U.S–led security strategy in order to overcome a common enemy and further terrorist attack. However,

Britain ultimately set up the Iraqi Investigation Committee and made it clear that the Iraq War became the symbol of miscalculation and mistakes of the U.S. government.

The conventional theory in international security emphasizes that the alliance could remain stable if they share a common identity, national interest, and external threat, but this research points out that it does not sufficiently explain the special relationship between countries that also could become unstable.

To answer this question, this study focuses on *Emotion* and how this could be contributed as *Trust* becomes the major variable in changing traditional alliance between two countries.

The conclusion for this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if two countries *trust* each other, they still cooperate on military actions even though the other party shows different purposes of its own. Second, if two countries *do not* trust each other, they do not continue their military alliance.

Keywords: Trust, Mistrust, Perception and Emotion, Iraq War, U.S–U.K Relations

Student Number: 2019–28404